

경상북도의사회가 만들어가는 따뜻한 이야기

경북의사회

2012 Summer Vol.46

공지사항

2012년도 회원정기신고 및 의사회비 납부안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 보안문서 파쇄 협약체결
'환자 권리와 의무 게시물' 부착 안내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이수 관련 대회원 안내
대회원 민원서비스 개선 방안 안내



경상북도 의사회

Gyeongsangbuk-do Medical Association

전문의약품
분류번호: 218
보험코드: 646801100

Proven. Potent. Pure.
OMACOR[®]
Omega-3-acid ethyl esters 90

How many lives could you save today?



GISSI-HF 연구에서
심부전 환자의
사망률 및 입원을
감소 효과 확인
(2008년 란셋지 보고)

Saves **21%** more lives when added to standard post-MI therapy

Saves **9%** more lives when added to standard Chronic Heart failure therapy

Proven

- 45%의 강력한 TG 저하 효과¹⁾
- 심근경색 환자의 Total mortality 21%, CV mortality 30%, Sudden death 44% 감소 효과²⁾³⁾
- 심부전 환자의 all-cause mortality 9%, all-cause mortality or hospitalization for CV reasons 8% 감소 효과⁴⁾
- FDA 승인받은 유일한 오메가-3-산 전문의약품
- 스타틴과 안전하게 병용투여 가능
복용금기의 범위가 적어 다른 동반 질환을 가진 환자에도 안전하게 병용처방 가능

Potent

- 유일하게 처방 가능한 고농축된 90% 오메가-3-산

Pure

- 수은 등 중금속 오염물질과 환경 호르몬을 완벽하게 제거

성분 및 함량 1캡슐 중 오메가-3-산 에틸에스테르 90(유리막전).....1,000mg
(EPA 에틸에스테르로서 460mg, DHA 에틸에스테르로서 380mg, 황산화제로서 알파토코페롤 4mg 함유)
효능 · 효과 · 심근경색 후 이차발생 예방
•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IV형)
• 고콜레스테롤혈증과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의 복합형(IIb형)
•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가 조절되지 않는 고콜레스테롤혈증과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의 복합형(IIb형) 환자에서 스타틴계 약물과 병용요법

References 1) *Atherosclerosis*, 1999; 143:285-297
2) *The Lancet*, 1999; 354: 447-455
3) *Circulation*, 2002;105:1897-1903
4) *The Lancet*, 6736(08)61239

실의 질 개선에 공헌하는 글로벌 제약기업
건일제약(주)
www.kuhnil.com

원료공급
기술제휴
PRONOVA
BIOCARE

보다 자세한 정보는 건일제약 마케팅부(02-2175-9774 / 977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경북의사사회

2012년 여름호(제46호)



- 04 **특별기고**
경상북도사학회에 바란다 · 국회의원 김재원
- 05 **포토뉴스**
사진으로 다시보는 제34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입선작
- 10 **삼행시 및 사행시 입선작**
- 11 **회무소식**
제34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Go together"를 주제로 성황리 개최
본회 임원 및 시군의사회장 워크숍서 지역의료현안 논의
전국 의사대표자대회서 의료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투쟁 다짐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 충북 괴산 도명산-낙영산서 개최
- 18 **회무단신**
- 23 **회원동정**
- 24 **의료기관 개원현황**
- 25 **공지사항**
2012년도 회원정기신고 및 의사회비 납부 안내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 보안문서 파쇄 협약체결
'환자 권리와 의무 게시물' 부착 안내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이수 관련 대의원 안내
대의원 민원서비스 개선 방안 안내
- 29 **분회 및 병원소식**
- 31 **인터뷰**
의사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 이원경
- 32 **의학 및 건강칼럼**
한국형 결핵 복약감시의 실제 · 이관
- 34 **노무소식**
주40시간 근무제 제대로 알기, 변화된 퇴직금 제도 · 장인호
- 36 **회원문예**
수필 _ 떠나라, 저 멀리! · 서역수
俳句 _ 당신은 정말 꿈같은 그림같이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셨던 분입니다 · 이봉구
보고서 _ 응급의료체계 · 김종영
- 46 **추천도서**
생명의 윤리를 말하다 · 김종영

주요연중 행사일정

2012. 4. 5	제40회 보건의 날 기념식	2012. 10. 27~28	전북 · 경북의사회 친선행사
2012. 4. 29	제64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2012. 10.	제47호 경북의사회보 가을호 발간
2012. 5. 11	제45호 경북의사회보 봄호 발간	2012. 11. 4	경북의사회 추계학술대회
2012. 5. 13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도명산)	2012. 12.	연말 복지시설 방문
2012. 5. 19~20	제34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2013. 1.	시군의사회장 및 임원 연석회의
2012. 6.	2012년도 회원정기신고	2013. 1.	제48호 경북의사회보 신년호 발간
2012. 7. 7~8	본회 임원 및 시군의사회장 워크숍	2013. 3.	2012년도 전체이사회
2012. 7. 23	제46호 경북의사회보 여름호 발간	2013. 3.	2012년도 회무감사
2012. 9. 2	의료봉사 기금마련 회원찬선골프대회	2013. 3.	제62차 정기대의원총회



경상북도의사회에 바란다

사람의 행복은 무엇보다 건강에 있고, 국민이 건강해야 행복한 나라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꽃피는 봄이 지나고 어느덧 녹음방초의 계절 여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 김재원입니다.

원센터와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첨단임상시험센터, 종합연구공간 등 핵심시설들이 100만㎡ 부지위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이를위해 향후 30년 동안 단지조성 및 시설운영비에 1조 8,000억원, 연구개발비에 3조 8,000억원 등 총 5조 6,000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파급 효과로 약 38만명의 고용창출 및 82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상북도의사회는 1943년 창립된 이래로 300만 도민들의 건강지킴이로서 참의료를 실현해 나가는데 앞장서고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애써주신 정능수 회장님과 김광만 의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및 회원여러분, 감사합니다.

앞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성되고 나면 더 많은 의료전문가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지역사회의 최고전문가 단체인 경상북도의사회의 큰 기여와 활동을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무엇보다 건강에 있고, 국민이 건강해야 행복한 나라입니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국민 개개인의 잠재력을 키우는 능동적 복지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역의 불균형 없이 국민들 골고루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지국가의 첫걸음입니다.

다시 한 번 제46호 경북의사회보의 발행을 축하하며, 그동안 애써주신 모든 회원여러분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년 연말이면 대구·경북지역에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성될 것입니다. 세계적 의료시장을 겨냥한 신약개발지

경상북도 군위·의성·청송 국회의원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재원

사진으로 다시보는 제34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춘계종합학술대회

1. 춘계학술대회 강의장 전경
2. 휴식시간을 겸한 홍보부스 관람
3. 정능수 회장의 인사
4. 노환규 의협회장의 축사
5. 나득영 학술이사의 사회





회원 및 가족 친선의 밤

1. 참석하신 내빈 및 고문단
2. 내빈과 함께 축하의 케익커팅
3. 친선의 밤 전경



경북의학제

1. 경북의학제 개최식
2. 정능수 회장의 개회사
3. 김광만 대의원회 의장의 축사
4. 남부지구를 대표하여 조성범 경주회장의 우승기 반환





경북의학제

1. 삼행시 및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 심사
2. 우승을 차지한 서부지구에 우승기 전달
3. 정능수 회장의 어린이 그림그리기 대회 시상
4. 삼행시 장원에 강혁주 회원(구미)
5. 행운권대상에 심진영 회원(칠곡)
6. 다함께 기념촬영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입선작

[주제 : '푸른 5월'과 '가족사랑']



대 상 | 전수현
(구미, 우성비뇨기과의원 회원 자녀)



금 상 | 이보건
(안동, 진보힐통증의학과의원 회원 자녀)



은 상 | 최자운
(안동, 성소병원 회원 자녀)



장려상 | 김도연
(경산, 도은정소아과의원 회원 자녀)



장려상 | 정민하
(포항, 정병기내과의원 회원 자녀)



장려상 | 정다현
(안동, 제일안과의원 회원 자녀)



장려상 | 이찬솔
(포항, 오천제일안과의원 회원 자녀)



장려상 | 이도겸
(안동, 진보힐통증의학과의원 회원 자녀)

삼행시 및 사행시 입선작

지난 5월 20일(일) 경주코오롱호텔 야외정원에서 열린 제34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삼행시 및 사행시에 「새시대, 잔치한판」의 시제로 총 70여 작품이 출품되어 입선된 작품이다.



장원

새 시대(강혁주, 구미 강내과의원)

새 색시는 오늘밤도 눈물로 지새우네
시어머니 아들손주 언제나며 닭달인데
대관절 울서방님 백일당직 언제 끝나~

차하

잔치한판(윤봉호, 경산 영남요양병원)

잔돈 3,000원에 목숨걸고 진료하며
치사하게 심평원 국민공단 눈치봤다
한번이라도 의사답게 소신진료 해보련다
판타스틱 의료환경 우리같이 만듭시다

새 시대(박연수, 경주 이퍼부과의원 이봉구 회원 자녀)

새 색시 시집은지 어언 삼십년
시댁식구 챙기느라 흰머리 소복하고
대장갈던 내낭군도 어깨가 굽었구료

잔치한판(김광인, 안동제통의원)

잔잔히 흐르는 강물을
치숫아 올라가는 연어처럼
한껏 피어오르는
판을 벌리자! 의권회복의 한마당을!!

차상

새 시대(정신란, 봉화제일의원 최예환 가족)

새근새근 잠든아가 그 모습이 아련한데
시간이 흘러흘러 참 예쁘게 자랐구나
대견한 나의 막내딸, 사랑한다 잊지마라

새 시대(제원일, 제중석신경과의원 제중석 회원 자녀)

새로운 친구들과 경주에서 만났어요
시험에서 벗어나 오늘은 마음껏 놀래요
대학은 멀었으니까! 난 걱정 안해요

참방

잔치한판(정재호, 김천 한양정형외과의원)

잔잔히 밀려오는 파도소리 들으면서
치밀하게 얽히고설킨 일상을 돌아보다
한잔술도 건배하며 용기를 내어보자
판판이 깨어지고 힘들어도 포기안해

잔치한판(김민서, 경산 푸른통증의학과의원 김석희 회원 자녀)

잔디가 깔린 운동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한명의 우승자가
판자처럼 바닥에 납작 엎드려 기쁨의 세리머니를 한다

새 시대(김지화, 경산 영남요양병원 윤봉호 회원 가족)

새 싹같은 마음으로 다시 시작합시다
시들해진 우리 마음에 다시 물을 줍시다
“대한민국에서 의사로 살기” 파이팅 합시다



제34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Go together”를 주제로 성황리 개최

전체 의사회원들이 모두가 하나 되는 화합의 축제인 제34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가 지난 2012년 5월 19일(토)~20일(일)까지 양일간 경주코오롱호텔에서 개최되어 새로운 의학지식을 습득하여 진료현장에서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춘계종합학술대회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위한 회원 및 가족 친선의 밤, 경북의학제 등 다채로운 행사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2012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

회원들의 자질향상 및 새로운 의학지식 습득을 위해 지난 5월 19일(토)부터 5월 20일(일)까지 경주코오롱호텔 오운홀에서 회원 7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상진료에 도움이 되는 학술연제와 시청각 교육, 회원과의 대화 등으로 구성된 2012년도 춘계종합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춘계종합학술대회 첫날 학술강연에는 나득영 학술이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관절의 슬관절 전방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에 대해 김철현 교수와 '2012 마약류 취급자 교육' 등 5편의 강의와 의료현안에 대한 특강시간에 노환규 의협회장은 “의협을 중심으로 모든 회원들이 뜻을 함께 하고 동참해주시기를 바라며, 의사의 날 행사 개최를 축하한다.”고 하였으며 최근 의료현안

경주코오롱호텔 오운홀에서 회원 7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술연제와 시청각 교육, 회원과의 대화 등으로 구성되어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으로 불합리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뜯어 고치고, '포괄수가제(DRG) 전면시행'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등 최근 의료현안에 대한 설명을 상세히 보고하였다.

둘째날에는 '만성 기침에 대한 개원가의 치료 전략'에 대해 이영현 동국의대 내과 교수 등 4편의 학술연제와 시청각 교육 2편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으며, 양일간 참석회원에게는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12평점이 주어졌다.

본회 정능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제34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는 'Go together'를 주제로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고 서로의 안부도 물으면서 새로운 의학지식을 습득하여 진료현장에서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오늘 의사의 날 행사를 통해 마음껏 즐기고 회원간 단합하는 행사로 즐거운 날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회원 및 가족 친선의 밤 행사 개최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를 축하하는 만찬과 더불어 '회

원 및 가족 친선의 밤' 행사가 5월 19일(토) 오후 7시부터 경주코오롱호텔 오운홀에서 문상용 기획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예년과 달리 회원별 장기자랑을 지양하고 다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공연행사를 마련하여 진료실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정능수 회장을 비롯하여 의협 노환규 협회장, 다른 일정으로 늦게 도착한 변영우 의협 대의원회 의장과 이병채·신은식·최종두·정만진·이석균 고문, 의협 송형곤 공보이사 등이 내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축하케익 컷팅을 시작으로 최윤경 단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된 벨리댄스팀 공연, 포항 트럼펫 앙상블팀의 트럼펫 연주, 국내 최고의 마술가로 구성된 매직캐트의 마술쇼 공연 등으로 참석한 회원들로부터 많은 박수를 받았으며, Sing along 공연으로 한형원·송영성·박세관 회원이 기타반주로 "젊은 연인들" "너에게 난, 나에게 넌" "사랑으로" 등 우리 귀에 익숙한 대중가요를 박수치며 부르는 등 모두가 하나되는 축제의 한마당 행사로 친목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여 흥을 돋우는 자리로 큰 박수를 받았다.

춘계종합학술대회 프로그램

5월 19일(토)

session I (좌장 : 심재철 부회장)

- 2012 마약류 취급자 교육
- 이정기(경상북도 식품의약과 사무관)
- 관절의 슬관절 전방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
- 김철현(경북의전원 재활의학과 교수)
- 어지럼증의 practical management tip
- 김성희(대구파티마병원 이비인후과 과장)

session II (좌장 : 장유석 부회장)

- 우울증의 약물치료
- 이승재(경북의전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암환자에서의 복부 MRI 최신지견
- 염현규(경북의전원 영상의학과 교수)
- 의료현안
- 노환규(대한의사협회장)

5월 20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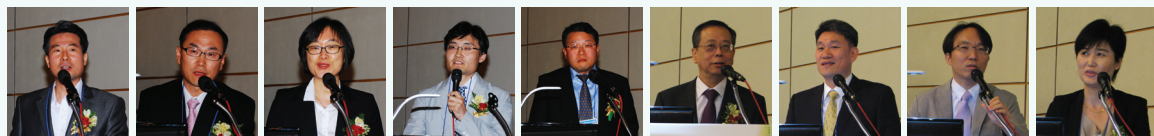
session III (좌장 : 김재왕 부회장)

- 한국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암
- 시청각(비디오)
- 만성 기침에 대한 개원가의 치료 전략
- 이영현(동국의대 내과 교수)

- 예방접종 질문에 답하기
- 이동욱(동국의대 가정의학과 교수)

session IV (좌장 : 황석순 대의원회 부의장)

- 일차 의료에서 흔히 보는 심전도이상
- 이영수(대구가톨릭의대 내과 교수)
- 당뇨병의 새로운 패러다임 :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 이덕희(경북의전원 예방의학과 교수)
- 저출산의 뒷(일본 장기불황의 교훈)
- 시청각(비디오)



이정기 사무관 김철현 교수 김성희 과장 이승재 교수 염현규 교수 이영현 교수 이동욱 교수 이영수 교수 이덕희 교수



경북의학제 '서부지구' 우승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개최된 경북의학제는 회원 상호간의 화합과 체력증진을 위해 도내 4개 권역별 대항전으로 지난 5월 20일(일) 오후 1시 경주코오롱호텔 야외정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경북의학제는 300여명의 회원 및 가족들이 각 권역별 대표 선수로 참여하여 야외정원에서 경기를 펼쳤으며, 먼저 OX퀴즈를 시작으로 단체경기인 탁구, 바둑, 족구, 윗놀이(남성·여성), 2인3각릴레이, 골프피칭과 번외경기로 테니스대회, 어린이 그림그리기, 시조 및 3행시 등의 다채로운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바둑·윗놀이(남성·여성), 2인3각릴레이에서 우승하여 총점 292점을 획득한 서부지구가 종합우승을, 준우승에는 북부지구, 3위 동부지구, 4위 남부

지구가 차지하였다.

또한 회원 및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3행시 및 사행시는 '새시대', '잔치한판'을 시제로 선정하여 70여편의 출품작 중에서 강내과의원(구미) 강혁주 회원이 장원에 입선하는 영광을 안았으며, △어린이 그림그리기는 '푸른5월'과 '가족사랑'을 주제로 40여편이 출품되어 대상에 전주현 어린이(구미, 우성비노기과의원 자녀)가 대상을 수상하였으며, △테니스대회에서는 김지홍·김성환 선수조가 우승을, 권영대·윤영목 선수조가 준우승을 차지하였다.

이밖에 공기청정기, 자전거, 선풍기 등의 많은 경품을 준비하여 진행된 행운권 추첨은 회원과 가족들의 뜨거운 호응과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등 내년에도 더욱더 알찬 행사로 진행할 것을 기약하며 제34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의 모든 행사를 마쳤다.

[종합점수표]

경기종목	동부	서부	남부	북부	
탁구	20	40	30	50	
바둑	40	50	20	30	
족구	50	20	30	40	
윗놀이	남성팀	20	50	30	40
	여성팀	30	50	20	40
골프피칭	40	20	50	30	
OX퀴즈	0	12	0	0	
종합성적	240	292	210	250	

- 종합우승 : 서부지구
- 준우승 : 북부지구
- 3위 : 동부지구
- 4위 : 남부지구



본회 임원 및 시군의사회장 워크숍서 지역의료현안 논의

소통과 참여를 통한 화합, 봉사하는 모습과 존경받는 의사상을 구현하자.



본회 제42대 집행부의 역점 추진사업으로 '새로운 시대정신에 맞는 의료계의 변화를 접목 시키고 소통과 참여를 통한 화합,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모습과 기부문화를 통한 존경받는 의사상'을 구현함은 물론 의료계의 건실한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기 위하여 경상북도의사회 임원 및 시군의사회장 워크숍을 지난 2012년 7월 7일(토)부터 8일(일)까지, 경주 블루원리조트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본회 정능수 회장을 비롯한 의협 대의원회 변영우 의장, 윤창겸 상근부 협회장, 황지환 정책이사, 집행부 임원 및 의장단·감사단, 각시군의사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 주제발표에서 김종영 공보이사는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이라는 주제로 경북지역 응급의료체계에 회원들의 관심 고취와 정보 제공을 위해 준비한 발표로서 도서산간지역이 많은 경북도내에 적합한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형, 지역자립형, 자원통합형의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도서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신설 및 응급의료 인력의 개발 및 훈련, 도서산간지역에 적합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 현장 응급 처치 강화 및 이송체계 지원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하였다.

황정환 기획이사는 '청소년기 문제해결과 학부모를 위한 의사의 역할'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청소년의 학교폭력, 우울증, 자살, 게임중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의사의 역할로서 빈곤층 또는 불우한 학생에 대한 지원, 행복한 학교 생활과 학업성취도 높이기, 의협의 교육문제 분과 위원회 설립, 청소년기의 자살, 우울증, 폭력에 대한 해결을 제시하고 의협차원에서 연구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장유석 부회장은 '본회 의료봉사단 활동계획'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현재까지의 의료봉사활동 내용을 소개하고 향후 의료봉사단의 재정 및 후원방법에 대해 기본적인 재정을 바탕으로 기부자선 모임 등을 통한 후원금 모금 등 체계적인 운영 방법을 모색하고,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단독 행사·지역의사회와 연계한 봉사·의료봉사단 구성으로 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통해 자원봉사를 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김재왕 부회장은 '의사단체의 정치세력화'에 대한 주제 발표에서 정치세력화의 방법으로 정책의 개발과 대화, 투쟁의 방법이 있으며, 향후 대선정국에 대한 준비로 우리가 추구하는 정책을 심거나 대항할 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며, 우호적인 인사를 발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또한 지역의사회의 역할로 국회의원의 친의료화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하고 1인 1사회단체 가입 등 지역 여론 주도 층과 어울려 우리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대국민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

정치세력화의 주의점으로 전문가단체의 집단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의사단체는 도덕과 양심이 담보되어 있는 세력이다'라는 점을 끊임없이 호소하고 보여주자고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하여 적절한 정책개발과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의협 윤창겸 상근부협회장은 최근 의료현안에 대한 발표에서 의료계를 둘러싼 대내외적 현실과 포괄수가제 강제적용 관련 대응 경과, 건강심 구조 개선, 의약품 재분류, 의료생협, 정부의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만성질환관리제, 의료분쟁조정제도, 면허신고제, 의사인력 적정수급문제, 환자권리 및 의무게시 의무화(액자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관련 대응, 병원협회와의 정책 및 제도적 갈등 문제 등 최근 이슈현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의협이 회원을 위해 잘못된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일할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달라고 하였다.

이튿날에는 친년고도 경주의 유적지인 석굴암과 불국사를 탐방하는 코스와 친선 운동으로 우의들 다지는 시간을 가졌으며, 경상북도의사회 임원 및 시군의사회장 워크숍을 성황리에 마쳤다.



김종영 공보이사

황정환 기획이사

장유석 부회장

김재왕 부회장

윤창겸 상근부협회장

전국 의사대표자대회서 의료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투쟁 다짐



의사의 자율권을 박탈하고 정부의 폭압적인 정책을 거부하는 의료계의 분노가 뜨겁게 표출됐다.

지난 6월 30일(토) 오후 6시부터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전국 의사 대표자대회'는 전국 16개 시도 및 시군구 의사회 집행부와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각 과별 개원의사회 임원들, 그리고 한국여자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협 산하 단체 대표 뿐 아니라 일반 회원과 의대생까지 약 14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개혁을 위한 의료계의 지속적인 투쟁을 다짐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노환규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의사들이 잘못된 의료제도의 본질을 깨닫고, 반드시 바꿀 수 있다는 자신감과 사명을 깨달아야 한다."라며 "변화가 필요할 때 변화를 만드는 것은 바로 나 자신과 동료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해달라"고 강조했으며, "마땅한 권리를 빼앗는 자는 강도, 저항하지 않는 자는 노예"라며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의사들이 노예로 남지 않겠다는, '노예 해방'을 천명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수술 연기 방침을 잠정 유보하기로 결정한데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이해를 당부했다.

변영우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회원들의 지속적인 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변 의장은 "의료계는 의약분업 투쟁 이

후 오랜만에 투쟁다운 투쟁을 이끌 수 있는 회장을 얻었다."면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우리는 정부의 관리를 받는 의사, 의사가 된 것이 하나도 자랑스럽지 않은 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수술 연기 방침의 잠정 철회는 결코 투쟁을 멈추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지금부터 더 큰 투쟁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참석한 각 지역 대표자들은 연대사를 통해 의협의 투쟁에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임수흠 서울특별시 의사회 회장,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부회장, 조필자 한국여자의사회 부회장, 대한전공의협의회 경문배 정책이사, 박우형 대한안과 의사회장 등은 비장한 목소리로 의협의 투쟁에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이날 대회는 의협의 '수술 연기 조건부 철회' 결정으로 인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투쟁 동력 상실'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의료계의 변함없는 투쟁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이날 전국 의사대표자대회에 본회에서는 정능수 회장을 비롯하여 김광만 의장,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 각시군 의사회장 및 임원, 본회 상임이사, 회원 등 40여명이 동참하여 힘을 실어 주었다.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 충북 괴산 도명산-낙영산서 개최

맑은 봄 날씨속에 2012년도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가 지난 5월 13일 일요일 충북 괴산군 청천면 도명산 - 낙영산에서 개최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했다.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는 본회에서 정능수 회장을 비롯한 김광만 대의원회 의장, 변영우 의협 의장 등 회원 및 가족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능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임기를 시작하고 첫 번째로 준비한 행사인 만큼 모두가 하나 되어 즐길 수 있는 소통의 자리가 되길 바라며, 등반을 통해 맑은 공기를 마시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했으며, 김광만 대의원회 의장은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준데 대해 감사드리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즐거운 시간이 되자."고 했다.

이날 등반대회는 대한의사산악회에서 준비하여 개최



인사와 더불어 등반코스 안내,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등반코스는 2분류로 나누어 A코스는 화양동 탐방지원센터 주차장을 출발하여 화양3교→침성대계곡→도명산(643m)→안부사거리(낙영산-조봉산갈림길)→공림사→공림사주차장을 종점으로 4시간 30분 코스와 B코스는 공림사 주차장을 출발하여 공림사→섬목골→안부사거리→낙영산정(684m)→문바위→681봉(헬기장)→back코스→공림사→공림사주차장 종점으로 2시간 30분 코스로 이루어져 진행되었다.

등반을 마친 회원 및 가족 참석자는 의사산악회에서 마련한 식당에서 뒤풀이 행사를 진행하며 등반의 피로를 풀었다.

전국 의사 등반대회는 대한의사산악회에서 주최하였으며, 노환규 의협회장과 변영우 대의원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의사산악회 회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의사산악회 정기총회 및 전국 의사 등반대회가 개최되었다.

경상북도의사회 페이스북 개설



본회는 회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SNS를 통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본회 페이스북을 개설하였다. 정능수 회장은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함께 갑시다(go together)'를 집행부 기조로 온라인에서도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소통함으로써 젊은 감각을 살리고 회원들과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으로 소통을 통한 화합을 기대할 것으로 본다.

○ 페이스북 이용방법

- 인터넷 : <http://www.facebook.com/igbma> 주소 입력 → 가입 (로그인) → '좋아요' 클릭
- 스마트폰 : 어플 다운로드 (f) 후 '경북의사회 페이스북' 사용
- ※ '페이스북' 어플 다운로드(스마트폰) 방법
 - 1) 갤럭시폰 : play스토어에서 '페이스북' 검색 → 다운로드 → 가입
 - 2) 아이폰 : 앱스토어에서 '페이스북' 검색 → 다운로드 → 가입

본회, 심사평가원 대구지원과 간담회 개최



본회(회장 정능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지원장 황의동)은 지난 5월 30일(수) 오후 7시, 대변식당에서 본회 제42대

집행부와 상견례를 겸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능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회원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심평원의 모습을 보여 달라."고 주문하였다. 또한, 황의동 지원장은 "소통이 안되고 오해에

이원경 경북도 보건정책과장 신임 인사차 내방



경상북도 이원경 신임 보건정책과장은 지난 2012년 6월 13일(수) 오후 5시 본회를 내방하여 정능수 회장에 취임 인사를

건넸다.

이날 인사차 방문한 자리에서 본회 정능수 회장은 오는 7월 1일부터 강제 시행되는 포괄수가제는 국민의 선택권 제한, 의료의 질 하락 등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히 예상되기에, 대국민 여론조성 등을 통해 포괄수가제 강제시행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문제점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였다. 또한 필수예방접종사업 지원, 응급의료의 문제점 등에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본회에서 추진중에 있는 해외의료봉사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이원경 보건정책과장은 저소득층을 비롯한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만을 대상으로 한 검진예정인 바,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본회와 각시군의사회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서 비롯된 문제들이 많다."며, "같이 고민하고 현장의 소리를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공하겠다."고 하였다.

이어 참석자 소개와 더불어 간담회에서는 심평원대구지원의 현황과 진료비 심사실적 등에 대해 간략한 소개가 있었으며, DUR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 착오기재 내역으로 동일사유 코드기재, 무의미사유기재, 부적합코드기재, 저합량매수처방 등이 발생함으로 DUR 점검내역은 처방조제 시점에 사유를 정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으므로 협조를 요청하였다.

또한 진료비 청구포탈서비스는 인터넷 망을 통해 심사평가원에 직접 청구하고 결과를 통보 받는 새로운 방식의 청구방법으로 업무처리가 신속·정확하고 사용자 부담이 없음으로 많은 사용을 당부(현재 대구·경북지역 67.3% 사용) 하였다.

의료봉사 기금마련 친선 골프대회 개최 안내

본회에서는 건강한 체력증진과 더불어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더불어 의료봉사 기금마련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기 위해 '제1회 경상북도의사회장배 의료봉사 후원기금마련 회원친선 골프대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회원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행사일시 : 2012년 9월 2일(일), 티업시간 추후안내
2. 장 소 : 블루원상주골프리조트(☎ 054-530-8888)

3. 지역별 조편성(인원) : 40조(160명)
4. 참가신청
 - 1) 각지역의사회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각지역의사회서는 골프대회 참석 예정자를 파악하여 오는 7월 27일(금)까지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행사경비
 - 골프대회 : 그린피 · 카트비 · 캐디피 등 개별부담
 - 참가비 : 5만원(1인)
 - 봉사기금마련 : 자동이체 신청(1구좌 1만원, 10구좌 이내(자율신청))
6. 기타 준비사항
 - 기타 상세한 일정은 최종 명단이 접수 되는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변영우 의협 의장 당선 축하 간담회 개최



지난 4월 29일(일) 개최된 의협 제64차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제27대 대의원회 변영우 의장이 당선됨에

따라 당선 축하연을 지난 5월 22일(화) 대어에서 개최하였다. 이날 축하연에는 본회 신은식 고문을 비롯한 중앙대의원과 대구시의사회 조세환·이원순 명예회장과 중앙대의원이 참석하였다.

정능수 본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구·경북의사회에서 15년만에 의장을 배출한데 대해 대구·경북의사회 회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의협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며, 김종서 대구시의사회장은 "대구·경북의사회의 위상과 전통을 살리고 아울러 좋은 기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이어 변영우 의장은 당선인사를 통해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의료계의 발전에 기여하고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으며, 이창감사는 "대구·경북의사회의 자존심을 살리고 의료계가 정도를 걸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인사하였다. 이어 간담회에서는 최근 의료현안으로 만성질환관리제 문제, DRG 강제시행 문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문제 등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경상북도 찾아가는 행복병원' 발대식 개최



경상북도에서는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등 의료취약 계층에 대해 찾아가서 보살피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행복병원(차량) 발대식'을 지난 7월 4일(수) 오전 11시, 경상북도 도청 앞마당에서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김관용 도지사 및 본회 정능수 회장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장, 변영우 포항의료원장, 이한양 안동의료원장, 지역주민 등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특수 제작된 행복병원 차량 6대(진료차량 3대, 승합버스 3대)에는 디지털 엑스선 촬영기, 초음파진단기 등 15종의 장비를 갖추고 대사성 질환, 노인성 질환 등의 검진을 할 수 있도록 꾸며졌으며, 포항의료원과 안동의료원, 김천의료원에서 지역별로 주 2회 순회하여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족,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입소자 등 의료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검진차량은 지난해 정부합동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받은 시상금 중 24억 원을 투입해 찾아가서 보살피는 고품격 감동 의료서비스를 제공, '도민 섬김 정신'을 실현하기 위해 경상북도에서 마련했다.

결혼이민여성 무료건강검진 업무 협약 체결



경상북도는 지난 2012년 4월 26일(목) 도청 강당에서 결혼이민여성의 체계적인 건강지원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본

회 정능수 회장을 비롯한 도내 대학 및 종합병원 등 41개 의료기관과 '결혼이민여성 무료건강검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본회 정능수 회장은 "무료 건강검진을 함으로써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다문화 가족 결혼여성의 질병예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며, "경상북도를 비롯한 의료기관의 많은 노력으로 결혼이민여성이 무료 건강검진 혜택을 받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체결을 통해 경북도는 결혼이민여성 건강검진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병원측은 결혼이민여성들에게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할 계획이다. 무료건강검진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30세 이상 40세 미만의 결혼이민여성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 일반건강검진 22개 항목을 2년에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동산의료원 새병원 기공식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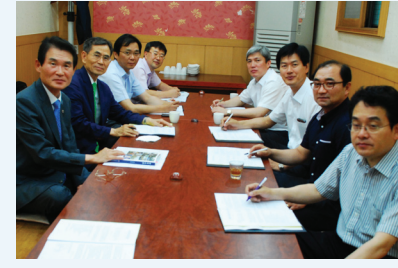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원장 차순도)이 5월 31일(목) 오후 2시 계명대 성서캠퍼스의 새 병원 부지에서 제2의 도약과 새

로운 100년을 향한 '새병원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 기공식에는 본회 정능수 회장을 비롯한, 김종서 대구시의회 회장 등 의료계 인사와 김범일 대구광역시 시장, 이인선 경북도 정부부지사, 조원진 국회의원 등 을 비롯한 대내외 주요인사와 지역주민 1천여명이 참석했다.

기공식은 권태찬 새의료원 건립추진본부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차순도 동산의료원장의 개회사, 신일희 계명대학교 총장의 환영사,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축하영상메시지, 김범일 대구광역시장, 조원진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들의 축사로 진행되었으며, 참석한 내빈들은 새병원의 성공적인 완공을 기원하며 기념 발파 세레모니와 포크레인, Vision 에 드벌룬 상승 등의 의식도 가졌다.

본회 회칙개정위원회 개최



지난 제 61 차 정기대의원총회(2012. 3. 17)에서 본회 회칙의 전반적인 점검과 아울러 현실과 다소 상이한 부분에 대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회칙개정을 위임받아 2012년 6월 29일(금) 오후 7시 30분, 사랑채식당에서 회칙개정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칙개정위원회 첫모임에서는 위원들에게 위촉장 수여 후 정만진 위원장 주재로 본회 회칙을 비롯한 각종 규정에 대해 검토해 가며 전체적인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거친 뒤 차후 회칙개정위원회에서 좀 더 신중하게 점검하여 결론을 도출키로 하였으며, 본회 이사회를 거쳐 내년 제 62차 정기대의원총회(2013. 3월)에 상정키로 하는 등의 스케줄을 마련하였다.

본회 회칙은 1945년 제정된 이래 수차례 개정(2008. 3. 22 최종)되어 왔으며, 제61차 정기대의원총회(2012. 3. 17)에서 회칙개정에 대해 위임 받은 사항이며, 회칙개정위원회는 의장단·감사단·시군의사회장·집행부를 대표하여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 본회 회칙개정위원 명단

직 위	성 명	의 료 기 관 명	비 고
위원장	정 만 진	청송, 경북북부제3교도소	직전의장
위 원	황 석 순	포항, 황석순내과의원	부의장
	조 성 범	경주, 한빛아동병원	시군회장
	김 학 근	구미, 중앙내과의원	
	김 석 곤	안동, 인선학문외과의원	감사단
	하 달 봉	영천, 하달봉피부비뇨기과의원	
	한 형 원	포항, 한형원내과의원	부회장
	김 종 영	경산, 김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공보이사
간 사	지 성 구	구미, 경북외과의원	법제이사

본회 윤리위원회에 위촉장 전달



지난 7월 11일(수) 오후 7시 30분, 사랑채식당에서 정능수 회장을 비롯한 이석균 윤리위원장 등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윤리위원회는 위촉장 수여와 더불어 첫 상견례를 가진 모임으로 정능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윤리위원으로 수락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올바른 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였으며, 이어 본회 주요 회무 추진사항과 의료현안에 대해 상세히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석균 위원장은 "회원 상호간의 이해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 윤리위원회의 역할이다."며, "모든 위원님들이 3년간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회원들의 권익보호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하였다.

이어 이석균 위원장 주재로 그간 윤리위원회의 개최결과 보고와 윤리위원회 규정에 대해 숙지하는 시간을 가진 후 회의를 마쳤다.

○ 본회 윤리위원회 명단

직 위	성 명	의 원 명	비 고
위원장	이 석 균	경산, 청십자내과외과의원	신임
부위원장	김 흥 태	상주, 김흥태내과의원	
위 원	김 대 환	영천, 베드로내과의원	유임
	박 경 옥	김천, 박경옥내과의원	
	김 동 옥	구미, 조은의원	신임
	김 장 희	경주, 맘존여성병원	
	권 영 철	포항, 권영철정형외과의원	
	최 현 옥	안동, 동산정형외과의원	
간 사	지 성 구	구미, 경북외과의원	법제이사

고문 변호사 및 세무사·노무사 위촉

본회의 원활한 회무수행과 더불어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본회 고문변호사와 고문세무사, 고문노무사를 각각 위촉하고 의사회와 회원들에게 많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구 분	내 용	전 화	팩 스
고문변호사	• 이수환 (법무법인 가야, 포항)	054-249-0071	054-249-0072
	•곽정환 (곽정환변호사법률사무소, 경주)	054-772-0202	054-772-8123
	• 권기준 (변호사권기준법률사무소, 안동)	054-856-7373	054-856-7376
고문세무사	• 유능중 (변호사유능중법률사무소, 구미)	054-443-2001	054-443-5504
고문노무사	• 백재환 (세무법인 누리, 대구)	053-356-5565	053-352-5525
고문노무사	• 장인호 (노무법인 남경, 대구)	053-766-0025	053-766-0032



이수환 변호사 곽정환 변호사



권기준 변호사 유능중 변호사



백재환 세무사 장인호 노무사

- 회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



본회 회무 및 지역의사회와 병원급 의료기관의 주요소식을 발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경북의사회보'를 계간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의 투고를 요청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 재 : 제한없음(시, 수필, 의학 및 건강칼럼 등)
- 원고매수 : A4용지 2장 내외(글자크기 12포인트 기준)
- 보내실 곳 : 홈페이지(www.igbma.or.kr)의 회원마당 → 회보투고란에 게재(상시제출가능)
- 기타사항 : •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의사회보 편집방침에 따라 취지에 맞도록 약간의 원고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6·25참전 전몰학우 추념비 참배



본회 정능수 회장은 현충일을 맞아 6월 5일 오전 9시 경북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이하 '경북대 의전원') 교정에서 열린 6·25

참전 전몰학우 추모식에 참석하여 참배하고 나라를 위해 생명을 바친 분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 날 참배에는 정능수 본회 회장과 김중서 대구시의사회 회장, 채성철 경북대 의전원 원장, 박진홍 6.25참전 53춘추회 회원, 학생대표 등 이 참석하여 헌화 및 분양, 추도사 낭독의 순으로 이어졌다. 경북대 의전원 전몰학우 추념비는 6·25 전쟁당시 학생의 신분으로 참전하여 전사한 10명을 기리기 위하여 53춘추회(경북의대 1953년 춘추졸업동기회)가 영영 돌아오지 않는 잊지 못할 학우들을 기리는 뜻을 모아 추모의 정을 새기기 위하여 1980년 4월 23일 건립되었다.

경북적십자사 희망나눔 캠페인 동참



지난 2012년 5월 3일(목) 호텔에서 이스에서 정능수 본회 회장이 적십자 희망나눔 명패 달기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대한적

십자사 경북지사 희망나눔 명패 250호가 탄생했다.

정능수 회장의 의료기관에 부착된 희망나눔명패는 지난해 본회와 경북적십자사가 사회공헌협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기부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회원들의 나눔 운동을 더욱 확산시키자는 취지로 이뤄졌다.

한편 '적십자 희망나눔 명패 달기' 캠페인은 일회성 기부가 아닌, 매월 일정액 이상을 적십자사에 기부하는 정기후원 프로그램으로 후원금은 도내 취약계층지원에 사용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은 대한적십자사 경북지사 사회협력팀(053-255-6963)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경북청소년선도위원회 '학교신문' 인터뷰



지난 7월 5일(목) 오후 5시, 본회 사무처에서 대구경북청소년선도위원회 '학교신문' 학생기자들과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는 학생기자들(고등학생 2명, 초등학교생 2명)이 의료전문가로서의 의사의 역할과 생활속의 의학상식 등에 관한 주제로 취재를 하였으며, 정능수 회장은 "어릴 때부터 아버님이 농촌지역 의성에서 환자를 진료하시고 왕진하는 모습을 보며, 커서는 농촌에 봉사하는 의사가 되겠다."는 어린적 꿈을 가지고 노력하여 지금의 삶을 이루게 되었고 항상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환자를 대하고 질병과 상처를 치료함에 앞서 환자의 마음을 읽는 방법도 치료의 한가지 방법이라며 일화를 소개하기도 하였다.

의사를 꿈꾸는 학생들에게는 근본적으로 봉사와 희생을 기반으로 높은 단계의 윤리의식을 필요로 하는 직업으로 단지 학업성적이 우수하다고, 부모님들이 권유한다고, 경제적 안정을 원한다고 의사직을 선택하면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며, 훌륭한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과 자기계발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부탁한다고 하였다.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인터뷰에서 마지막으로 학생기자들에게 사회 부조리에 맞서 굴절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필력을 키워 줄 것을 부탁하며 마무리 지었다.

의료기관 현지 조사, 확인제도 책자 배부



대한의사협회는 회원의 권리보호와 진료권 확보, 조사기관의 불합리한 조사 실시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회원들이 꼭 알아야 할 의료기관 현지 조사·확인 제도' 책자를 제작하여 각시군 의사사회를 통해 배부하였다.

동 책자는 의료기관 현지 확인·조사 제도 비교,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현지조사 시 유의사항,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에 대한 Q&A, 요양기관 현지확인·조사 관련 법령, 현지조사·확인 시 서식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본회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조옥근 회원, 민복진씨 조각작품 포항시 기증



포항시에서는 지난 2012년 6월 9일(토), 포항문화예술회관 앞에서 박승호 포항시장을 비롯한 지역문화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옥근 회원(포항, 조내과의원의 소장작품 기증식을 가졌다. 조옥근 회원이 소장하고 있

는 한국구상조각미술계의 1세대인 민복진의 조각 작품을 시민들에게 기증하는 이번 행사는 개인이 공적인 성격으로 미술품을 기증하는 것으로서 지역사회에서는 이례적으로 젊은 시절부터 예술활동을 하면서 틈틈이 미술에 대한 안목과 지식으로 한국의 문화재와 예술작품에 애정을 가지고 수집해왔다.

조옥근 회원은 그동안 포항시에 도서관 부지 기증, 청소년 수련관 부지 기증, 시민운동장 호돌이사 건립과 암벽등반 시설 협조 등 지역 문화발전에 많은 역할과 기여를 해오기도 했다.

의료원의 한 단계 도약 위해 변승열·신현수 원장 용퇴



변승열 포항의료원장(위)과 신현수 안동의료원장(아래)이 의료원의 한 단계 도약과 후진 양성을 위해 용퇴를 결정하고 퇴임하였다.



변승열 원장은 국민건강증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지역보건의료의 발전에 이바지하였으며, 특히 자율적 경영개선·특성화 전문병원 전략 및 시설·장비 현대화사업 추진, 전국 34개 지방의료원의 균형 발전 등에 공헌한 점을 높이 평가받아 제39회 보건의 날에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상했다. 변 원장은 경북의대를 졸업한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지난 2001년 6월부터 포항의료원이 동해안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 지난해에는 흑자 경영의 위업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했다.

신현수 원장은 경북의대를 졸업하고 1992년 원장으로 부임해 50병상에 불과했던 안동의료원을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승격시키면서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기반을 마련했으며, 대외적으로도 전국 최고의 공공의료기관으로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40회 보건의 날에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하였다.

경상북도 포항의료원 변영우 원장, 안동의료원 이한양 원장 임용

경상북도는 지난 2012년 5월 10일부터 24일까지(15일간) 공모절차에 의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전형, 면접심사를 거쳐 2012년 7월 2일, 포항의료원 변영우 원장(재), 안동의료원 이한양 원장을 임기 3년의 새로운 의료원장(우)으로 임용하였다.

변영우(64세) 포항의료원장은 1974년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현재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을 역



임하고 있으며, 이번에 포항 의료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이한양(65세) 안동의료원장은 1976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취득하였으며 예천군, 안동시 보건소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 안동의료원 이사로 활동하다가 안동의료원장으로 임명되었다.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이영배 교수, 대한신경손상학회 최우수논문상 수상



동국의대 이영배 교수는 지난 5월 19일 열린 2012 대한신경손상학회 제19차 정기학술대회에서 'Leon-Wiltse 학술상'을 수상하였다.

수상 논문은 'Evolution of chronic subdural hematoma based on CT findings and appropriate treatment methods'으로 만성 경막하 혈종으로 진단되어 동국대 경주병원에서

수술 가료하고 3개월 이상 추적 가능하였던 환자들을 대상으로 만성 경막하 혈종의 최적의 치료 방법과 혈종의 생성 기전을 규명하고자 한 논문이다. 이 논문에 의하면 만성 경막하 혈종은 경막하 수종 및 급성 경막하 혈종에서 유래되며, 신생 혈종막의 재출혈과 삼투압 및 혈중내 섬유소용해 활동 증가가 혈액이 응고되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데 관여하는데, 경막하 수종에서 출발한 경우는 신생 혈종막의 재출혈이, 급성 경막하 혈종에서 시작 된 경우는 삼투압이 혈중 성장의 주요 원인이라고 하였다. 치료는 대부분 소천공 배액술 혹은 단순 천공 배액술로 충분하지만, 혼합형 혹은 acute on chronic type의 경우는 적절한 맞춤형 치료 전략(수술 방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한재호 회원, 경북도지사 감사패 수상



구미 박정희체육관에서 개최된 2012년 아시아 레슬링선수권대회(2012. 2. 16 ~ 2. 19)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협조하고 헝가리 레슬링협회장을 정성껏 치료해준데 대해 감사의 뜻으로 한재호(구미, 한재호내과의원) 회원이 지난 2012년 5월 12일 경상북도 김관용 지사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하였다.

우창호 회원, 제5회 한국의사가요대전 영남지역 예선전 금상 수상



청년의사가 주최하고 동아제약이 후원하는 '제5회 한국의사가요대전-스티렌 의사가요제' 영남 지역 예선전이 개그맨 표영호 씨의 사회로 지난 2012년 6월 16일(토) 경북대병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모두 8팀이 참가해 진행된 이날 경연에서 트로트로 관객몰이에 나선 해맞이연

합의원 우창호 회원(포항)에게 돌아갔다. 우창호 회원은 하동진의 '사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로 금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날 예선전에서 금상, 은상, 인기상(2팀)을 수상한 4팀은 오는 8월 12일 오후 2시 연세의료원 은명대강당에서 열리는 결선에 참가해 왕중왕을 가리게 된다. (사진 제공 : 청년의사 신문)

최중근 회원, 새누리당 중앙당 부대변인 임명



새누리당이 최중근 탐 정형외과 원장을 중앙당 부대변인에 임명했다. 의학박사 출신의 의료인이면서 수필가, 사회 교육사업가로서의 길을 걸어 온 최원장은 부대변인 임명과 관련 "소중한 기회를 마련해 준 중앙당에 감사드립니다"

고 밝히고 "구미지역사회가 모든 분야에서 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정권 재창출을 위해 밀알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 및 유관기관 위원 추천

구 분	위원 회명	위 원
대한 의사회	의료정책연구소 운영위원	김재왕 부회장
	사회협력위원회 위원	이우석 의무이사
	자동차보험협의회 위원	이상호 보험회사
	보험위원회 위원	이홍우 보험이사
	개원의협의회 평의원	이우석 의무이사 김학근 구미회장
	법제위원회 위원	지성구 법제이사
	의무위원회 위원	이우석 의무이사
유관 기관	경상북도 부패방지협의회 위원	정능수 회장
	세계군인체육대회 조직위원회 위원	정능수 회장
	공동모금회 시민감사위원회 위원	김종영 공보이사

2012년도 회원정기신고 및 의사회비 납부 안내

매년 실시되는 회원정기신고와 2012년도 의사회비는 의사의 전문성 및 자율성을 확보하고 정책단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이미지 고양과 회원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님께서 납부해 주시는 소중한 회비는 의권 신장과 더불어 본회의 효율적인 사업추진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쓰여지고 있으며, 의사의 중추단체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건강지킴이 역할 수행은 물론 단합된 회세와 전문성을 확보하여 정책단체로서의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의사단체의 존재성을 되새겨 회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대상

-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본회 소속회원)

:: 회원 변동 신고

- 회원기록부에 인적사항 누락 또는 변경사항을 정확히 수정 기재 후 날인
- 전산입력된 기록부가 없는 회원은 공란(백지)용지에 상세히 기록 날인
-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 및 수집·이용 동의서를 회원 본인 확인(서명 날인) 후 신고서를 지역의사회로 송부(취합후 본회 제출)

:: 의협회비 면제 및 감면 대상

- 회비면제 회원
 - 만70세이상 회원(1942년 5월 1일 이전 출생자) : 단, 경상북도 의사회비는 '가 회원' 250,000원, '나 회원' 125,000원 납부
 - 질병, 신체장애, 해외연수 등의 사유로 회계연도중 12개월 이상 진료활동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 회원
 - 공직 또는 봉직의사로서 정년퇴임 후 경제활동이 없는 회원
 -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타 분야에 전업한 회원
 - 기타 사유로 생계가 극히 곤란함이 인정되어 면제를 요청하는 회원
 - * 회비면제회원 신청 : 해당회원의 증빙자료 첨부 신청
- 회비 감면회원
 - 개원회원('가'회원)중 '나'회원회비 적용대상 : 471,000원 징수
 - 만65세이상 회원 : 1942년 5월 1일 ~ 1947년 4월 30일 주민등록표상 기준

:: 회비내역

구 분	가 회원		나 회원	다 회원	라 회원	휴직회원	비 고
	개원회원	감면회원	근무회원	전공의회원	공보의회원		
대한의사회회비	300,000	221,000	221,000	125,000	96,000	125,000	연회비·구독료·연구소 회비 학술대회분담금
경북도의사회비	250,000	250,000	125,000	75,000	-	-	
계	550,000	471,000	346,000	200,000	96,000	125,000	

:: 입금계좌

- 농협 301-0104-6600-81 경상북도의사회

개원을 축하합니다 (2012년 3월 ~ 6월)



포항시

이 병 화 _ 해맞이의원
(790-811)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해맞이로 202 2층
T. (054)284-9693

황 수 경 _ 황수경유외과의원
(790-823) 포항시 남구 회망대로 797
T. (054)252-4655 / F.283-9991

박 정 호 _ 백연합외과의원
(791-943) 포항시 북구 흥해읍
중성로32번길 27
T. (054)261-9391 / F.261-7843

경주시

손 영 규 _ 소망이비인후과의원
(780-943) 경주시 성건동 340-1
T. (054)746-0002 / F.746-0002

계명대학교 경주동산요양병원
(780-060) 경주시 봉황로 65
T. (054)770-9520 / F.741-3438

안동시

박성호 · 유태선
_ 마디웃는연합신경외과의원

(760-310) 안동시 경북대로 395
T. (054)854-7474 / F.854-7476

송 철 현 _ 우리연합마취통증의학과의원
(760-400) 안동시 강남5길 10
T. (054)855-8575 / F.859-8575

영주시

청하요양병원 영주점
(750-902) 영주시 신재로24번길 91
T. (054)632-7090 / F.630-9999

경산시

김 채 선 _ 탐통증의학과의원
(712-803) 경산시 중방동 849-19
T. (053)813-8275 / F.813-8274

진량삼성요양병원
(712-837) 경산시 진량읍 낙산1길 14
T. (053)854-0369 / F.854-0370

의성군

태 흥 식 _ 공생병원
(769-805) 의성군 의성읍 후죽리 475-3
T. (054)834-3881 / F.833-9523

영덕군

문 성 욱 _ 서울연합의원
(766-801) 영덕군 영덕읍 남석길 76-1
T. (054)733-2663 / F.733-2881

김정일 _ 한빛연합의원
(766-821) 영덕군 강구면 영덕대계로 50
T. (054)733-2352 / F.733-2900

청도군

임 찬 규 _ 세안의원
(714-833) 청도군 풍각면 봉기로 151
T. (054)373-7007 / F.373-7059

칠곡군

강 형 욱 _ 미래여성산부인과의원
(718-805)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166
T. (054)976-1600 / F.976-1601

예천군

유 시 욱 _ 온누리의원
(757-802) 예천군 예천읍 시장로 115
T. (054)655-7001 / F.655-7003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 보안문서 파쇄 협약체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진료기록부 등 보존기간이 지난 문서는 폐기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회에서는 의료기관의 보안문서 및 기록물 파쇄를 위해 대구드림텍과 협약을 체결하고 본회를 통해 의뢰된 기록물에 한해 회원 의료기관에서는 무료로 파쇄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보안문서 파쇄차량이 서비스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직접 자료를 파쇄**하고 있습니다.”

강점

- 비용절감(Cost) : 보안문서를 세절하거나 별도의 시설로 이동하여 소각했던 방식보다 경제적
- 완벽보안(Security) : 문서폐기과정을 촬영하여 제공하고 파쇄증명서를 발급함으로써 정보의 유출 완벽 차단
- 환경보호(Environment) : 서류를 분쇄하여 용해 후 재활용하기 때문에 자원절약, 대기오염, 수질오염이 없는 높은 친환경성 자랑

작업절차



:: 문서파쇄

- 파쇄차량 현장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파쇄 처리 원칙(개인정보 등 보안문서 파쇄사업)
- 의료기관에서는 본회 회원임을 밝히고 대구드림텍에 의뢰할 경우 무료로 파쇄 처리



대구드림텍

대구광역시 설립(2011. 10. 26), 아시아복지재단 운영(장애인근로사업장), 근로자 51명, 수익 및 생활지원 사업 등 전개

· 주소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로68길 42 · 전화 : 053-583-1252 · 팩스 : 053-583-12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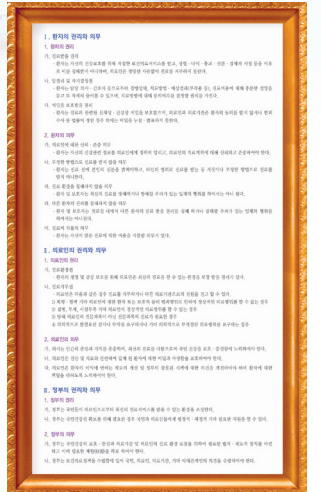
‘환자 권리와 의무 게시물’ 부착안내

환자의 권리 및 의무를 의료기관에 게시토록 하는 근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에서 게시물에 대한 일정한 틀과 형식, 내용, 게시장소 등을 강제하고, 위반시 과태료 처분까지 부과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규제일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자율권을 심각히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의 강제에 따른 게시물 부착에 앞서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산하단체 의견과 법률 자문을 거쳐 ‘환자의 권리 및 의무’에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정부의 권리와 의무’까지 함께 명시한 의료기관 게시물 내용을 마련했으니 각 의료기관에서는 반드시 부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12. 8. 2부터 ■ 위반시 : 과태료 100만원 처분(의료법 제92조 제3항6호)

※ ‘환자의 권리와 의무’ 외에 ‘의료인의 권리와 의무’, ‘정부의 권리와 의무’가 함께 명시된 게시물은 시군의사회 및 병원으로 일괄 송부되었습니다.



면허신고제 및 보수교육 이수 관련 대회원 안내



의료인이 면허 취득 후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면허신고제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2012. 4. 28. 개정)이 지난 4월 29일자로 시행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각 지자체에서 보건복지부의 면허신고 및 업무지침을 일선 의료기관에 통보해 면허신고제에 대한 회원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불필요한 행정 낭비 등 동 제도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로 인하여 회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 제도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함께 회원 권익보호를 위한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 제도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실시한 결과, 의료법상 신고업무를 각 협회장(중앙회장)에게 위탁하고 회원들은 협회(중앙회)에 면허 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의료법 시행령 제11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회(중앙회) 차원에서 면허신고를 받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회원들에게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의협의 추후 안내사항이 있을때 까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이수 받지 않은 회원은 해당 교육을 반드시 이수 받으셔야 합니다**[만일, 2011년도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2012년도에 개설된 보수교육(2011년 미이수에 대한 교육) 8시간을 이수하고, 이와는 별도로 2012년도분 보수교육 8시간을 이수하여야 함].

대회원 민원서비스 개선 방안 안내



대한의사협회에서는 대회원 민원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고 회원들의 민원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원전담 조직으로 2개 팀을 신설하여 원활한 민원처리를 함으로써 회원 권익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주요내용

1) 대회원 민원서비스 전문 2개 팀 신설 : 보험민원팀 · 의무민원팀

2) 팀별 제공 민원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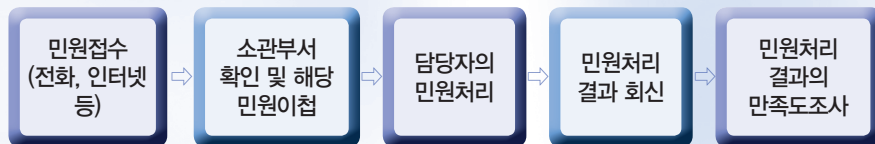
① 보험민원팀

- 건강보험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민원처리
- 건강보험공단 현지확인 및 보건복지부 실사대응
- 공단의 수진자조회 등 진료비 환수 관련 민원처리
- 심평원 심사삭감 관련 민원 처리
- 보험사의 부당행위 대응, 노인요양보험 관련 민원 처리

② 의무민원팀

- 건강보험 외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민원처리
- 보건 의료 관계법령에 관한 사항에 대한 민원처리
- 세제개선 등 세무관련 민원
- 의료기기 및 진단방사선장치 관련 민원처리
- 예방접종 관련 질의회신 민원처리 등

3) 민원처리 절차



4) 연락처 : 보험민원팀 ☎ 02-794-2474 (내선 310~312)
 의무민원팀 ☎ 02-794-2474 (내선 320~324)

향후 민원업무 수행 방향

- 의협은 민원서비스에 대한 회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이 제기될 때까지 기다리는 수동적 태도가 아닌, 민원발생 상황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며, 실제로 회원 민원 관련 대 언론 모니터링 상시수행, 의협 홈페이지 게시판, 의사회원 커뮤니티 게시판 내용 등을 확인하여 민원발생 사항을 먼저 인지해 해결할 예정임.
- 또한 표준화된 서식에 의거, 민원처리 사항을 기재하여 관련 데이터를 축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것이며, 추후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회원들의 만족 여부를 파악하고, 민원처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은 무엇이었던지 파악할 예정임.

분회 및 병원소식

포항시의사회

포항시의사회 학술대회 개최



포항시의사회(회장 신명준)는 지난 2012년 6월 14일(목) 오후 7시부터 포항시의사회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학술대회는 포항시의사회 양동훈 학술이사의 사회로 포항지역 회원 등 102명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뤘으며, 신명준 포항회장의 인사와 더불어 선린병원 송국현 협동원장과 포항세명기독병원 한동선 병원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KDB산업은행금융그룹 재테크 강좌'와 포항성모병원 내과 최선택 과장의 '간염의 최신치료'와 선린병원 신경과 이용만 과장의 '어지럼증', '질문 및 토의'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청년희망 국토대장정 무료진료 및 의약품 지원



YGK(위대한 대한의 청년단) 청년희망 국토대장정단은 7월 10일(화)부터 8월 2일(목)까지 총 2500여명이 국토대장정에 나섬에 따라 포항시의사회와 경상북도지사회는 지난 7월 10일 강서리 해수욕장(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서리)에서 무료진료를 펼쳤다.

분회 정능수 회장, 신명준 포항회장, 탁우택 보험이사(탁우택신내과의원), 김성언 정보이사(포항세명기독병원 성형외과), 조혁래 정책이사(포항성모병원 신경외과)와 간호사 2명이 참가하여 무료진료를 펼쳤으며, 의약품을 구입하여 지원하였다.

경주시의사회

의협에 1000만원 성금 전달

경주시의사회(회장 조성범)는 지난 6월 12일(화)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의협이 대국민 홍보 강화를 위한 성금을 모금기로 함에 따라 임원 및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각 출한 1000만원의 성금을 모금해 의협에 기탁하였다.

조성범 회장은 "경주시의사회 임원 뿐만 아니라 회원들의 큰 호응이 있기 때문에 성금을 모금기로 결정하게 됐다"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알리기 위해서 대국민 홍보가 절실한데, 1000만원이라는 성금이 비록 작을 수도 있지만 의협 집행부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료종사자를 위한 BLS 교육



의료종사자를 위한 BLS(Basic Life Support) 교육이 지난 2012년 6월 13일(수) 오후 7시,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1층 강당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교육은 나득영 학술이사(동국대학

교 경주병원 심장내과)가 추진하여 1년에 2회 교육(상·하반기 각 1회)으로 응급의학과 최대해 교수가 강의하였으며 사전 등록된 회원 12명이 참석하였으며, 사전에 배부된 BLS Pretest 풀이를 통해 이론을 익히고 동영상 보면서 성인 BLS, 자동제세동기(AED) 작동법, 소아 BLS, 영아 BLS 등에 대한 이해 및 실습을 실시하였다. 또한 모든 과정후에는 숭기평가(성인 BLS와 AED)를 통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주시의사회 홈페이지 재오픈



경주시의사회는 기존 사용하던 홈페이지를 리뉴얼하여 새로이 재오픈 하였다.

경주시의사회 홈페이지는 의사사회 소개,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갤러리, 홍보마당, 소모임 소식으로 크게 6개의 나누어 회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꾸며졌으며, 조성범 회장은 "인터넷 공간을 통하여 자유롭게 대화하며 회원여러분들의 따스한 마음들을 서로 정답게 나눌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jkma.org>

안동시의사회

안동시의사회 임시총회 개최

안동시의사회(회장 김석곤)는 지난 2012년 5월 11일(금) 오후 6시, 안동의료원 강당에서 최중두, 최유근, 신현수, 이한양 원로회원 등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개최



하였다.
이날 총회에서는 경북의학계 선수선발을 비롯한 친선골프대회를 준비하였으며, 안동 의료원 신현수원장의 출판기념 및 의료원 증축소개가 있었다.

원로회원 및 임원 간담회 개최



지난 2012년 5월 14일(월) 오후 7시, 부속한 정식에서 본회 정능수 회장의 방문인사와 더불어 최근 의료현안 논의를 위한 안동지역 원로회원 및 임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최중두·최유근·유동명·정만진 회원과 김석근 안동회장, 정재엽·윤영목 이사과 본회 정능수 회장, 김재왕 부회장, 김광인 부의장, 문상웅 기획이사, 최영환 학술이사가 참석하였으며, 간담회를 통해 최근 의료현안 설명과 더불어 의사회 회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회원 친선골프대회 개최



지난 2012년 6월 3일(일) 떼제베이스트CC에서 회원 39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시의회 친선골프대회가 열렸다. 이날 골프대회에서는 성낙관(안동병원 영상의학과) 회원이 72타로 메달리스트를, 1등에 차인숙 회원(차이비인후과의원)이 차지하는 등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구미시의사회

회원 친선골프대회 개최



구미시의사회(회장 김학근)는 지난 2012년 6월 17일(일) 선산C.C에서 제18회 구미시의사회장배 골프대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골프대회는 본회 정능수 회장을 비롯한 김학근 구미시의사회장, 박재호 원로회원을 비롯한 많은 회원들이 참가하여 개최되었으며, 우승은 김철기(김철기소아청소년과의원)이 차지하는 등 회원들과의 친목도 모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의성군의사회

정기모임 및 공단지사장 초청 간담회



의성군의사회(회장 권순효)는 지난 2012년 7월 9일(월) 오후 7시, 한우마실에서 정능수 회장 당선 축하연과 더불어 건보공단 의성·군위지사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료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상북도김천의료원

지역거점 공공병원 중 최고등급 평가

경상북도 김천의료원(원장 김영일)이 지역거점 공공병원 중 가장 우수한 병원으로 평가됐다. 지난 7월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지방의료원 34곳, 적십자병원 5곳 등 모두 39개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운영상황을 평가한 결과, 김천의료원이 83.99점을 받아 1위에 올랐다. 총점 80점 이상인 A 등급을 받은 곳은 김천의료원 외에 남원의료원이 유일했다. 질 높은 의료, 합리적 운

영,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사회적 책임 등 4개 분야로 나눠 평가되었으며, 또한 순수하게 의료 수익만 따져 흑자인 곳은 김천의료원이 유일했다.

순천향대학교 구미병원

'아름다운 하모니'로 희망과 감동 전달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병원장 오천환)에서 지난 2012년 5월 16일(수), 병원 로비에서 구미시립합창단원들이 만들어 내는 하모니가 울려 퍼졌다. 이번 공연은 구미시립합창단의 찾아가는 음악회로 가정의 달을 기념하여 아픈 환자분들과 간병으로 지친 보호자들을 위로하고자 마련됐으며, 이날 공연에서는 '넬라 환타지아'를 시작으로 이탈리아 민요 '푸니 쿠니푸니쿨라'와 지킬 앤 하이드의 주요 테마곡인 '지금 이순간'이 불러져 환자들의 뜨거운 박수와 호응을 자아냈다.

중국청년에게 희망의 삶 선물



중국 내몽고 후허하오터 지역에 사는 장우비(21세)씨는 10여년 전 총수염(맹장)으로 세 번이나 수술 받았지만 수술 후 합병증으로 장피누공이 생겨 복부에 장기가 돌출되고 상처부위로 배설물이 흘러나오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지난 4월 7일 입국한 장씨는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후 12일, 유착 된 장기들을 떼어 내고 복부에 생긴 장루를 막는 수술을 받았다. 또한 이 수술 외에 불편했던 여섯 손가락중 하나를 제거하는 기형 교정수술도 받았다.

의사소통 채널을 열어두고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편집자주] 구미시 보건소장으로 재직중 6월에 경상북도 보건정책과장으로 부임한 이원경 보건정책과장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였습니다.

이원경 경상북도 보건정책과장

- 1991년 _ 경북의대 졸업
- 2001. 08. _ 구미시 선산보건소장
- 2012. 06. _ 경상북도 보건정책과장
- 2002년 _ 경북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 2007. 05. _ 구미시 구미보건소장 (지방기술서기관)

+ 구미시 보건소장에서 경상북도 보건정책과장으로 지원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요?

++ 의과대학교육내용이 대부분 개인에 대한 치료위주의 임상진료에 관한 것이지만, 개개인이 처한 사회적 조건이나 상태는 질병과 장애의 가능성을 높일 뿐 만 아니라 질병예방과 건강유지를 촉진하기도 합니다. 현재 소득의 양극화가 건강불평등을 심화시켜 건강수준의 양극화를 고착시키고 있으며, 소득의 양극화로 인한 교육기회의 양극화가 이를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경상북도 도민의 건강수준향상을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지리적 취약계층의 질병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면서 고통화 되어가고 있는 도민들의 건강수명연장을 위한 공공보건정책을 수립해서 지역 보건소, 민간의료기관, 지역 유관단체, 도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의 보건행정의 차이점은 어떠한지요?

++ 첫째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정책에 대한 주민설득이 공식적, 비공식적 개별관계를 통해 어느 정도 가능하였는데,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언론과의 협의, 대화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의 보건행정을 잘 수행하려면 나름대로의 광역보건행정의 철학과 기본개념이 확실히 정립되어야 언론과 소통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째는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시민과 민간의료자원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보건 의료지식 외에도 행정적으로 해결해 내는 능력, 품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제해결에 대한 행정가와 보건의료전문가의 입장 차이를 극복해서 잘 어울려진 답안을 제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보건소와 비교해보면, 동원 가능한 보건자원의 수준이 높다는 점과 지역전문가들의 협조가 적극적이라는 점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 지금까지 의사로서는 오랜 공직 생활을 하셨는데, 평소 가지고 계신 공직관이라면 무엇입니까?

++ 저의 공직자로서의 원칙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기 때문에 누구보다 세금을 정

직하게(청렴) 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국민의 세금으로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일을 하기에 공평정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저 자신 부족한 면이 많음을 절실히 느끼고 반성하고 있습니다만,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슴에 품고 저에게 주어진 권한과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공직을 원하는 경북의사 회원들에게 조언과 바람을 말씀해주세요.

++ 공직에 있다는 것은 우리사회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가진 위치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자리에서 지역사회를 조금 더 나은 상태(사회적 합의가 된)로 변화시키기 위한 합리적 목표와 전략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일을 하다보면 공지와 보람도 느낄 수 있지만 가끔 자신감도 떨어지고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에 몸담겠다고 결심한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고 은근과 끈기로 이겨내려고 합니다. 많은 훌륭한 의사선생님들이 환자 한분 한분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지역사회에 관심을 갖고, 지역보건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공직에 들어오시기를 희망합니다.

+ 끝으로 경상북도 발전을 위한 경상북도의사회에 바람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 국가 보건의료 체계 내에서 민간의료기관이 질적, 양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90%에 육박하는 현실에서 중요한 보건문제를 해결하는데 의사선생님들의 대표단체인 의협이나 저희 지역의 도 의사회와의 긴밀한 협조는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험, 치료영역에서는 보건정책과 - 일선 보건소와의 마찰보다는 건강보험체계와의 불협화음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방, 건강증진 영역이나, 미충족 의료 수요에 대한 형평성차원에서 접근하는 보건정책에 대해서는 의사회차원에서도 적극적인 지지가 있다고 믿고 있으며, 제도권에서도 커버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진료봉사에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사회원 역시 도민인 만큼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전체 도민들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의사회와 행정기관의 의사소통 채널을 항상 열어두고 함께 고민하여 좋은 안이 나오길 희망합니다.

한국형 결핵 복약감시의 실제



현재 우리나라의 결핵발생률, 유병률, 사망률은 OECD 국가 중 1위로서 그 발생률은 일본의 4배, 미국의 22배에 이른다⁽¹⁾. 물론 2000년대 이전에는 국가결핵관리사업을 추진한 결과 빠른 속도로 환자 및 사망자 수가 감소하였으나, 최근 들어 그 속도가 둔화되어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결핵이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이유는 결핵환자의 45%가 생산연령층(20-40대)으로 생산성 손실을 초래하고 있으며, 다제내성결핵, 슈퍼결핵 등 난치성 결핵의 위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결핵으로부터 자유로운 건강 사회라는 기치아래 2015년까지 결핵발생률을 50%감소시키고, 2020년까지는 결핵발생률을 인구 10만 명당 20명 수준의 선진국 수준으로 도달하고자 적극적인 결핵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²⁾.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결핵관리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민간-공공협력(Public Private Mix : PPM)결핵관리사업⁽³⁾과 직접복약감시(Directly Observed Treatment Short course : DOTs)^(4,5)가 그것이다.

PPM사업은 전국의료기관 116개소, 보건소 44개소에 결핵관리 전담간호사를 배치하여 실시하는 결핵환자관리사업을 중심으로 의료기관결핵환자접촉자검진사업, 결핵환자의료비지원사업, 입원명령결핵환자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³⁾. 이 중에서 결핵환자관리사업은 PPM사업의 대표적 예로서, 민간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환자들에 대하여 공공부분과 민간부분이 서로 협조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의 필요성과 결핵관리법의 법적 근거를 토대로 출발하였다. 주요 사업 내용은 결핵환자 신고 건수가 일정 이상인 의료기관에 결핵환자에 대한 추구관리를 위하여 결핵관리전담간호사를 지원하는 것이다. 한편 결핵관리전담간호사는 환자 등록, 보건교육, 전화 모니터링,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PPM사업은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9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특히 결핵환자관리사업 대상 결핵환자의 치료성공률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⁶⁾.

DOTs사업은 WHO가 채택하고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잘 훈련된 결핵관리요원(의료진이 아니라도 상관없음)이 환자의 결핵약 복용에 대한 소극적인 관찰이나 사후 평가를 넘어서 환자가 약을 먹지 않았을 때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개입까지 포함하고 있다. 결핵관리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약물 복용률을 향상시키고, 약제 내성률을 낮추며, 궁극적으로 결핵 치료율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하여 복약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스스로 복약이 어려운 환자들에 대한 치료 순응도를 향상시켜 치료 성공률의 향상 및 약제내성결핵의 확산 방지를 위해 위한 DOTs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일찍이 제기된 바 있다^(4,5). 우리나라의 높은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은 국제 사회로부터 우리나라 보건의료 수준의 저평가를 초래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DOTs 사업 미

실시 국가로 잔류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결핵조기퇴치 New2020 plan을 추진하면서 다양한 DOTs 시범사업을 통하여 민간과 협력하여 WHO의 결핵조기퇴치 전략인 DOTs의 한국형 운영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현재 시범사업에 있는 한국형 DOTs 사업은 크게 3형태로 진행하고 있다. 직접방문 복약감시, 약상자를 이용한 복약감시, 스마트폰을 이용한 복약감시 등이 그것이다. 직접방문 복약감시는 노인층 및 거동 불편 환자에 대하여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복약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 약상자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복약감시는 첨단 IT기술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복약 여부를 감시하는 것이다. 약상자의 경우 약을 복용할 때 마다 인터넷 환경에서 중앙 서버에 복용 여부가 자동으로 인식되며, 제한된 시간에 복용 여부가 확인이 안될 경우 유선으로 확인하는 방법이다. 스마트폰의 경우 약물복용 시간을 매일 알려주고 제 시간에 복용하는 동영상 또는 사진을 중앙 서버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전 국민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5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젊은층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기에 효율적인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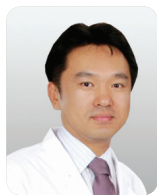
한편 DOTs가 결핵치료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였다고 하지만, 일부 환자에 대해 한정될 수밖에 없으며, 전체 환자를 매일 관리하는데 비용과 노동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모바일 문자 메시지(Short Message Service; SMS)가 직접 모니터링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비용-효과적인 새로운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다⁽⁷⁾. 그러나 SMS는 알림이 기능의 결국 보조적인 장치라는 한계가 있으며, 첨단 IT기술을 응용한 쌍방향 통신이 가능한 비디오폰, 스마트폰, 약상자 등을 이용한 DOTs의 유용성과 필요성이 보고되고 있다^(8,9).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환경이 잘 구축된 나라 중 하나로 DOT에 IT기술의 접목이 용이하며, 기술의 확산이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단순한 통화 또는 메시지 전달을 통한 결핵환자 추구관리가 쌍방향 교류가 가능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관리할 경우 추구관리가 용이하고, 궁극적으로 약물용량을 향상시켜 치료율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PPM 사업 후 결핵치료 성공률이 93.5%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결핵 치료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높은 치료탈락률이다⁽⁶⁾. 치료 탈락은 결국 치료 성공률의 감소와 약제내성결핵의 확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적극적인 결핵관리가 필요하며, DOTs가 이러한 결핵관리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DOTs의 효과에 대해서 아직 논란이 많은 만큼⁽¹⁰⁾ 무작정 DOTs를 시행하는 것보다는 비용-

효과, 인구, 소득, 교육수준, 접근성 등의 다양한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최적의 DOTs를 찾아 적용하는 일이 보건전문가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DOTs만이 능사가 아니며, 더불어 인센티브 제공, 법적 제재, 결핵관리요원에 대한 동기 부여 등을 통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¹¹⁾.

이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결핵관리사업에 대한 대략적인 현황을 살펴보았다. 결국 결핵은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감염병의 일종이며, 제대로 치료되지 않을 경우 재발이 빈번하고, 다제내성결핵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결핵 치료의 경우 환자는 많은 용량의 약물을 제대로, 지속적으로 장기간 복용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다. 다행히 국가는 다양한 결핵관리사업을 계획하고 수행하면서 이러한 환자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과 사망률은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고문헌

1.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report 2011: Global Tuberculosis Control.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1.
2. 질병관리본부. 2012국가결핵관리지침 2012
3. 질병관리본부. 민간·공공협력결핵관리사업 지침-결핵관리전담간호사 지원 의료기관용, 2012
4.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report on the tuberculosis epidemic 1997.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1997.
5. Frieden TR, Sbarbaro JA. Promoting adherence to treatment for tuberculosis: the importance of direct observation. World Hosp Health Serv 2007;43(2):30-3
6. Park JS. Increasing the treatment success rate of tuberculosis in a private hospital through Public-Private Mix (PPM) Project. Tuberc Respir Dis 2011;70:143-49
7. Fjeldsoe BS, Marshall AL, Miller YD. Behavior change interventions delivered by mobile telephone short-message service. Am J Prev Med 2009;36(2):165-73.
8. Barclay E. Text messages could hasten tuberculosis drug compliance. Lancet 2009;373(9657):15-16
9. Hoffman JA, Cunningham JR, Suleh AJ, Sundsmo A, Dekker D, Vago F, Munly K, Igonya EK, Hunt-Glassman J. Mobile direct observation treatment for tuberculosis patients: a technical feasibility pilot using mobile phones in Nairobi, Kenya. Am J Prev Med. 2010;39(1):78-80
10. Volmink J, Garner P. Directly observed therapy for treating tuberculosis. Cochrane Database Syst Rev 2007;(4):CD003343
11. Volmink J, Matchaba P, Garner P. Directly observed therapy and treatment adherence. Lancet 2000;355(9212):1345-50



이 관 교수
동국대 예방의학교실

2011년 7월 1일 이후 변화된 근로기준법

- 주40시간 근무제 제대로 알기
- 변화된 퇴직금 제도



노무법인 남경 대표노무사 장인호

:: 어떤 의미인가?

2011. 7. 1부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 40시간 근무제가 적용되었다. 상시근로자에는 아르바이트, 식당, 청소, 주차관리 업무를 하는 모든 근로자가 포함된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장에 시행한다는 의미는 경북의사회 소속 의원의 상당수에 적용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근로시간단축과 시간급의 증가로 인한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의 변화 등을 살펴보고 적법하게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 주 40시간의 의미

1. 토요일 근무 전부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의무

5명이 근무하는 A의원의 甲간호사는 토요일에 09:00~17:00까지 근무한다. 주40시간제가 시행됨을 그녀는 알고 있다. 한 달 후 토요일 근무 전부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기대에 부풀어 있다. 정당한 기대인가?

- 주40시간제가 시행 되면 월~금까지의 근무시간이 40시간을 넘으면 토요일 근무는 전부 연장근로가 된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되 1.5배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예) 시급이 5천원인 근로자의 경우
5천원 × 7시간 × 1.5 × 4.34주 = 227,850원을 매달 지급하여야 한다.

2. 월차휴가소멸, 생리휴가의 무급화

B의원의 乙간호사는 한 달을 열심히 근무 후 생리휴가 및 월차휴가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의원의 특성상 생리 및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자 다음 달 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했다. 옳은가?

- 주40시간제는 월차휴가가 삭제되고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개정되었다. 즉 월차휴가는 청구할 수 없으며 생리휴가로 실 경우 월급에서 하루분의 급여를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

3. 연차휴가 발생수의 변동

가. C의원의 丙간호사는 2011. 1. 1. 입사하여 2011. 12. 31. 까지 열심히 근무 후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사용 못할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2012. 1. 1. ~ 12. 31까지 미사용한 경우 2012. 12. 31 수당지급 의무발생)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다. 맞는가?

- 주40시간제는 연차휴가 발생수가 기존의 10개에서 15개로 증가하였다. 또한 입사 1년 후 매 2년 마다 1개씩 증가한다. 따라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예1) 2011. 1. 1. 입사의 경우
2012: 15개
2014: 16개 발생
예2) 기본급이 100만원인 경우
: 100만원 ÷ 30 × 15 = 50만원

따라서 5명의 직원이 3년(소멸시효가 3년 임) 분을 동시에 청구 할 경우 750만원을 지급해야 함.

나. D의원의 丁간호사는 2011. 8. 1. 입사하였다. 평소 법에 관심이 많던 그녀는 주40시간제는 1년이 지나지 않아도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한 달을 근무 후 연차휴가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정해야 할 것인가?

- 주40시간제는 월차휴가가 삭제된 이유로 1년을 경과하지 못한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기 위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인정하고 있다.

:: 위 변화된 제도에 대한 해결책

1. 일반의원의 경우 급여대장을 세무신고용(급여대장)으로 갈음하고 근로계약서는 작성치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따라서 직원들이 연장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해고문제를 노동청 및 노동위원회에 신고하였을 경우 적절히 대처할 수 없었다.

즉, 월 실급여 일정액을 약속하며 그 속에 연차휴가 및 연장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계약한 후 근로관계를 유지했으나 정작 노동청에서는 구체적으로 수당액이 명시되지 않으면 전부를 기본급으로 인정하여 추가로 지급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급여를 세분화하여 정산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반드시 항목별로 세분화하여 금액분산을 하여야 한다.

2. 세무신고용 급여대장은 기본급과 비과세 항목인 차량유지비 및 식대로 구성되어 있다. (세무신고용으로는 적절함) 그러나 기본급이 너무 높아 연장수당 등 각종 수당의 지급금액이 상당히 높아진다.

기본급을 20%(주40시간제의 월 법정근로시간)로 나누어 시급을 확정하고 그 시급을 곱하여 수당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이 역시 분산작업을 통하여 세분화하여야 하는 이유이다. 법 테두리 안에서 주장하는 근로자의 권리찾기를 탓할 수만은 없다. 2011. 7. 시행되는 주40시간 근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만이 야기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일소할 수 있는 길이다.

:: 퇴직금 제도의 변경

1. 2012. 7. 26. 이후 변화

가. 퇴직금 중간정산 금지

1년 근무 후 퇴직금 중간정산 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으나 2012. 7. 26. 이후부터는 중간정산이 금지된다. 따라서 퇴직금제도(퇴직 시 근무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와 퇴직연금제도 중 택일하게 되었다. 특히 2012. 7. 26. 이후 개업하는 경우(사업자등록 상 일자) 퇴직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제재 조항이 없기 때문에 선언적 의무조항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제재 조항이 입법화 되지 않는 한 미가입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다.

나. 퇴직금 중간정산 시 효과

2012. 7. 26. 이후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금을 다시 청구 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다만,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중간정산은 금해야 한다.

다. 퇴직연금제도

퇴직연금제도는 크게 DB형과 DC형으로 분류되며 장·단점이 있으므로 바른 선택이 필요하다.

라. 퇴직연금이 최선인가

퇴직연금 가입 시 매년 전체 근로자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분을 중간충당공제(경비처리) 할 수 있으나 미가입 시(퇴직 시 일시금으로 주는 경우는 매년 미리 공제가 되지 않고 퇴직 당시 지출에 대해서만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의원의 수입구조에 따라 선택을 하여야 할 것이다.

퇴직연금제도가 아직은 완비 되었다고 단언할 수 없다. 금융권에서 말하는 수익률이 임금상승율을 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여부를 확인 한 후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지면의 여건 상 퇴직연금의 장·단점과 의원에 적합한 선택이 어떤 것인지 논하기엔 무리가 있다.

현재 금융권에서는 단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인사노무 전반(급여인상율, 4대보험 미가입자의 위험성 등)에 대한 부지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퇴직금은 근로자측 및 사용자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이자 부담이 될 수 있다.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퇴직금인 만큼 올바른 선택으로 첫 단추를 제대로 채워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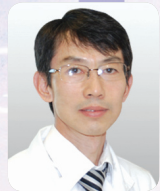


떠나라, 저 멀리!

나이가 들면 저녁 해거름 시각이 더욱 친숙해 지는 것 같다. 울음 타는 저녁노을이 지고 사방천지로 번지는 푸른 어둠이 깔리면 나는 의자를 돌우어 창 너머로 보이는 시간의 풍경에 촉수를 드리운다. 하나 둘 가로등불이 켜지고 차들은 형체를 잃고 달리는 불빛으로 바뀌면 나의 생에 대한 궁극의 의문과 연민이 그 불빛처럼 일어난다. 55년의 삶의 뿌리를 대구에서 경주로 통째로 옮겨온 요사이 더 예민해지는 것 같다. 점멸하는 신호등 불빛과 왔다가는 사라지는 자동차 불빛들 사이로 내 살아온 굴곡의 시간들이 흐른다.

나는 이 지구별에 와서 생의 반 이상을 훌쩍 넘기고 이제 남은 생을 이곳 소도시 경주에서 보내려 한다. 나는 지난 세월 하나 뿐인 딸아이를 잘 키워 출가 시켰고, 손자도 벌써 두 명이나 보았으며, 의대 안과 교수라는 직함으로 보람된 일을 하고 있으니, 내 생을 헛되이 보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날 홀연히 내가 이 지구별을 떠난다 해도 이 자리에서 누렸던 행복과 기쁨은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뭔가 모를 생의 허망과 고독이 저 어두운 밤하늘의 흐린 별빛처럼 아련하다. 이 존재의 슬픈 운명과의 같은 허망과 고독은 결국 설명할 수 없는 삶의 본질로 이해하고 이 지구별을 떠나게 되겠지만, 영원에 대한 갈망 또한 이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나를 괴롭힐 것이다. 젊었을 때는 잘 이해하지 못했던 "일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라는 운동주의 서시를 다시금 펼쳐보게 된다.

어두움은 더욱 짙어지고 들리지 않는 적막은 깊어간다. 어두운 적막과는 대조로 시골과 다름없는 이곳 맑은 대기로 달빛은 시리도록 밝다. 어두운 적막 속으로 가라앉는, 이게 인생이고, 이게 삶의 다가 아닌가. 하는 안주와 떠오르는 달빛처럼 그 안주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 사이에 팽팽한 긴장이 흐른다.



서익수 교수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안과



다른 누구도 아닌 오로지 너 자신이 되라.
인생을 뜻 깊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것들만 구하라.
그 다음 동트는 새벽의 빛을 구하라.
이 또한 나의 다 하지 못한, 그래서 떠나서 돌아가야 할,
저 멀리! 나의 갈망들이다.

떠나라, 저 멀리!
항상 익숙한 산행에 안주할 때쯤이면 내 속에서 부르짖는 내면의 소리이다. 이 역시 삶에서 안주할 때 들려오는 소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암벽도 빙벽도 오르고 알프스도 히말라야에도 갔었다.

이제 떠나라, 저 멀리! 이 내면의 소리는 대구에서 여기 경주로 떠나오게 했다. 대구에서 경주가 물리적 시간적 거리는 멀지 않지만 내 삶의 태도를 바꾸는 떠남이고 저 멀리! 일지도 모른다. 나는 여기서 또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갈망을 좇아 한탄할 그 무엇이 두려워 떠난 지난날의 산과 삶 같이, 또 다른 산을 오르고 고단한 삶을 채워야 한다.

아직은 낯선 도시이기에 어둠과 적막이 더 깊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밤이 깊을수록 출가한 하나 밖에 없는 딸아이와 그 피부치인 손자 생각이 더 난다. 비록 삶의 본질이 고통이고 외로움이고 허망일지라도, 그들이 어떤 형태로든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한다. 나는 그들이 꽃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길 바란다. 이 대책 없는 사랑과 그리움은 내가 읽은 선인들의 말씀을 빌어 딸과 손자에게 편지를 쓰게 한다.

"다른 누구도 아닌 오로지 너 자신이 되라. 네가 먹을 음식과 네가 입을 옷과 네가 살 집을 스스로 마련하라. 해 뜰 때 누워있지 말고 일어나서 걷고 일하라. 해진 뒤엔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지친 몸을 쉬게 하라.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쌓아두지 말라. 그것들이 귀한 시간을 값싸고 인생을 낭비하게 만든다. 인생을 뜻 깊게 만드는데 꼭 필요한 것들만 구하라. 건강한 음식, 따뜻한 옷 한 벌, 비바람 막아주는 집, 책 읽을 시간, 훌륭한 벗,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감각, 그 다음 동트는 새벽의 빛을 구하라."

이 또한 나의 다 하지 못한, 그래서 떠나서 돌아가야 할, 저 멀리!
나의 갈망들이다.

당신은 정말 꿈같은,
그림같이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셨던 분입니다.

[故 백승인 원장님 영전에]



백승인 원장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침은 또다시 밝았는데
선생님을 기다리는 저 사랑스런 아기들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어서 일어나셔서 진료하러 가야지요.

매일 그러셨듯이 아래 시장 아줌마들과 인사도 나누고
오늘 하루 장사 잘되라고 덕담도 나누셔야죠.

메콩강 지류를 따라 달리던 그 통통배 소리는 들리십니까?
구름같이 몰려들어 선생님을 둘러싸던
베트남 어린이들의 순박한 눈동자가 생각나지 않으세요?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는 세상
환자가 의사를 믿지 못하는 서글픈 현실 속에서
참다운 의사 모습이 어떤 건지 온몸으로 보여주신 원장님

새벽 세시 아기가 아파 애타는 엄마의 전화를 받고
졸린 눈 부비고 집을 나서 기꺼이 진료실을 향하던 그 마음

유난히 병치레가 잦던 아기가 잘 자라서 돌잔치 하는 날
내 일처럼 기뻐하며
예쁜 아기 옷 하나 장만해 축하하러 가시던 분

저희들도 원장님 교훈을,
가슴 저리게 따뜻했던 그 사랑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꿈같은, 그림같이 아름다운 마음을 지니셨던 분입니다.

모든 일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고
갓난아이처럼 순수했던 소아과 선생님
정작 당신이 환자가 되자
성경 말씀 한 줄 한 줄 밀줄 그으며
하나님 음성이 들려온다고,
이제야 그토록 애통해하시던 예수님 심정을 조금은 알겠노라고
해같이 밝은 얼굴로 감격하며 감사해하던 그 모습
그런 당신을 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른 아침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 사랑하는 사모님
만날 때 마다 꼬옥 안아주시던 두 딸, 한나와 성은이
그리고 마음 든든해하시던 종민이
이제 이 세상에서 어루만질 수 없어도
천국에서 다시 만나리라는 소망으로
터져 나오는 울음을 참습니다.

저희들도 원장님 교훈을, 가슴 저리게 따뜻했던 그 사랑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하늘나라에서 고이 잠드소서.
(2012년 5월 23일 경주제일교회 장례예식 중에서)

이봉구
경주, 이피부과의원 원장



응급의료체계



응급의료는 건강 이상을 느낀 환자들 대부분이 본인의 의사로 의료기관을 찾는 것과는 달리 응급의료는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일어나는 긴급 건강 이상 상태로 의료진 및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도움없이 건강위로부터 탈출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경상북도의사회에서는 응급의료관련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응급환자는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기타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국가와 민간이 힘을 합쳐 효율적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빠른 시간내에 환자가 정상으로 복귀하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응급의료), 공공의료와 사회안전망의 한 부분을 공유하면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수행 될 수 있도록 하여야한다(응급의료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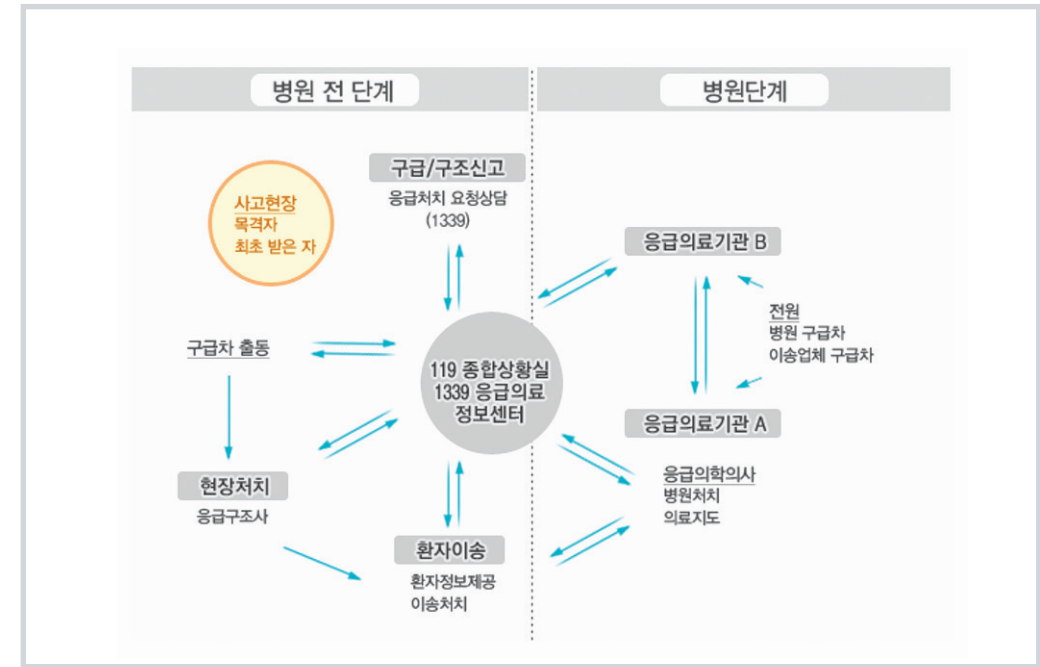
응급의료와 관련한 주요 변화는 1978년 의료보험제도 도입, 1979년 대한의학협회 주관의 야간응급환자 신고센터운영, 1982년 서울에서 119구급대 운영, 1991년 응급의료기관지정, 1995년 응급구조사 양성, 1996년 응급의학전문의 제도 인가, 2012년 119통합운영, 8월 5일부터 응급의료법 시행령 규칙 개정예정으로 나타나는데 현재의 의료 현실을 외면한 것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응급의료체계는 크게 병원 전단계와 병원 단계로 나뉘는데 병원 전 단계는 응급환자 발생현장, 현장처치, 이송중처치 등이 있으며, 병원단계는 응급실진료와 입원 진료로 나뉘지며 간단한 모식도는 다음과 같다.



김종영 본회 공보이사
김연합소아청소년과의원 경산

[병원단계 모식도]



응급의료 현장중 의료취약지의 정의는 2007년 중앙응급의료센터 기준에 따르면 6점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점수	응급의료센터까지 이송시간 ¹⁾	현장까지 구급차소요시간 ²⁾	교통사고 사망률 ³⁾
0	10분 이내	모든 읍면이 10분 이내	매우 낮음
1	30분 이내	30분 이내	낮음
2	1시간 이내	1시간 이내	높음
3	1시간 초과	하나 이상의 읍면이 1시간 초과	매우 높음

- 참고
- 1) 지역내 읍면사무소로부터 응급의료센터 도착까지 소요되는 시간
 - 2) 지역내 읍면사무소에 가장 가까운 위치의 119구급차가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 3) (해당지역의 1년간 운수사고 사망자수)/(해당지역 인구수)

통신체계는 의료법 개정으로 2012년에 119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의료취약지의 문제점으로는 1)응급의료자원부족 2)낮은 접근성 및 적시성 3)낮은 응급의료 서비스 안전성 및 효과성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1)주민 참여형의 응급의료 체계구축 2)지역자립형의 응급의료체계구축 3)자원 통합형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과 해결에 경상북도의사회의 역할과 중앙 또는 지방 자치단체와의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해야할 부분으로 보여진다.

이송체계는 병원 이송은 119구급대가 담당하고 병원간 이송은 병원자체 구급차나 민간 이송업체가 주로 담당한다. 2011년 12월 31일 현재 전국의 구급차수는 6706대로 특수구급차 2711대 일반구급차 3995대이며 응급구조사수 6648명으로 1급구조사 3388명, 2급구조사 3260명이며 총응급실 이용자수가 1030만여명으로 국민 5명당 약 1명이 적어도 한번 응급실을 방문하였다. 응급실 도착전 사망이 40355명으로 응급실방문자의 0.4%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국가응급환자진료정보망(NEDIS)에 가입한 병원을 대상으로 응급환자 대한 119구급차의 이송율이 14.9%, 비응급환자는 9%로 나타났다.

인력은 응급의학전문의가 958명, 수련의가 449명으로 매년 약 100명의 응급의학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으나 연구에 의하면 응급실당 약 5.8명의 전문의가 필요한데 응급의료체계하의 응급의료지정기관이 462개소이니까 2680명이 필요하다. 이것은 필수자원의 부족이 앞으로 15년이상 지속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고, 그동안 이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의료 인력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응급의료기관의 구성은 표1.와 같으며 종별 의료 인력 충족요건이 다르다.

표1. 응급의료기관 구성

종별	수(경북)	응급실병상수	지정권자	주요역할
중앙응급의료센터	1	전체 7219	보건복지부장관	응급의료체계관리 총괄
권역응급의료센터	21(1)	593	보건복지부장관	권역내최종응급의료기관
전문응급의료센터	2	140	보건복지부장관	
지역응급의료센터	115(9)	3041	시·도지사	중증응급환자진료
지역응급의료기관	323(28)	3445	시장·군수·구청장	경증응급환자 및 야간·휴일의일반환자진료
지역응급의료기관외 응급실운영	132(9)		시장·군수·구청장	

※ 2012년 6월말 경상북도는 영양, 영덕, 성주, 봉화, 예천(분만취약지 지원지역) 지역응급의료 기관지정이 없는 곳이다.

표2. 응급의료체계현황

구분	구급차수 (특수/일반)	응급구조사수 (1급/2급)	10만명당 구급차수 (전체/ 119구급대)	천명당 응급실 이용자수	응급실이용자수 (※참고2008년 890만명)			
					계	외래	입원	도착전 사망 (참고1)
전국	6706 (2711/3995)	6648 (3388/3260)	13.22/2.47	204	10327028 (100%)	8469189 (82.0)	1817484 (17.6)	40355 (0.4)
서울	939 (255/684)	962 (422/540)	9.16/1.38	167	1716561 (100%)	1396181 (81.4)	313571 (18.3)	6809 (0.3) (4851/1427/ 338)
대구	342 (85/257)	307 (115/192)	13.64/1.95	171	428665 (100%)	342378 (79.9)	84948 (19.8)	1339 (0.3) (494/621/84)
경북	484 (219/265)	555 (192/363)	17.93/4.26	216	583486 (100%)	494182 (84.7)	85647 (14.7)	3657 (0.6) (871/2150/504)
전북	320 (110/219)	342 (166/176)	17.56/3.47	259	484514 (100%)	412991 (85.2)	70027 (14.5)	1496 (0.3) (701/380/322)
경남	482 (241/241)	442 (184/258)	14.57/3.20	255	845131 (100%)	727050 (86.0)	116006 (13.7)	2075 (0.3) (269/1505/271)

※ 참고1. 지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기관 / 응급의료기관외의료기관

표3. 국토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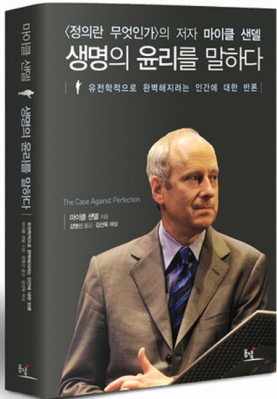
구분	전국	경북	서울
Km ²	99373	19029.56	605.19
%	100	19.1	0.6

현황표(표2)를 보면 인구대비 지표위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서울의 30배 면적(표3)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의 도민들이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접근성에서 공평하지 못하는 점을 부각하지 않고 있다. 즉 도민들이 응급환자 발생시 장소에 따라 현장 도착시간, 이송시간에 있어서 대도시 만큼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응급실 도착시 사망한 환자들의 수를 보면 전국 평균 0.4%보다 높고, 타도시 평균(0.3%)보다도 높았다는 점이다. 또한 전국적으로 이들의 도착의료기관이 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기관이 88.7%를 차지하고 있는데 경상북도는 지역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기관외(지정을 받지않은) 의료기관에서 82.6%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생명의 윤리를 말하다

마이클 샌델 저
강명신 옮김
도서출판 동녘

김종영 본회 공보이사
(김연함소아청소년과의원 원장)



벌써부터 한가 모드로 접어들고 있는 진료실에 딱 맞는 책이 있어 추천한다. “정의란 무엇인가”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 교수가 유전공학과 관련한 생명윤리에 대해서 쓴 책이다. 마지막 에필로그 부분의 배아 윤리학 - 줄기세포 논쟁을 읽게 되면 현재 최첨단 유전공학 분야의 흐름을 살펴볼 수 있고, 의사로서의 생명윤리 의식 고취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의사로서의 나름대로의 방향을 기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샌델교수는 공동체의 특수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보편적 가치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liberal communitarianism)으로 불리어진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사람이다.

책을 읽을 때, 에필로그를 먼저 읽기를 권하고 싶다. 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윤리적인 문제부터 유전 공학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1978년 최초의 시험관 아기가, 우리나라에서는 1985년 서울대에서 쌍둥이가 태어난 후 전세계적으로 500만 번째 시험관 아기가 태어났다고 한다. 단순히 시험관 아기 한명이 태어났다는 사실만이지만 이 책을 읽고 나면 동료 가족들에게 해줄 말이 엄청 많아 질 것이다.

보편적인 우리의 일상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유전학적 제비뽑기의 결과로 ‘운 좋게’ 라고밖에 할 수 없는 타고난 좋은 유전자(주어진 선물, giftedness)로 인한 자연적 불평등(지적,

육체적 등)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그들이 사회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인정해 주고 또한 성공한 사람들도 성공이 자신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진 것 아니라는 겸손을 가지면서 종교적으로든지 자연적으로든지 주어진 좋은 유전자를 받음에 감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배려한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현재 사회를 건전하게 유지하는 질서라고 본다.

그러나 책 내용에서는 유전학적 강화(genetic enhancement)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하면서 인위적 유전자 조작으로 생기는 불평등을 조모조목 설명하고, 반론하고 마지막에 그 반론에 대한 반론으로 결론을 내리는 과정은 독자들이 샌델교수가 생명윤리에 대한 특정 사안을 꿰뚫는 통찰력이 있는 그래서 유명할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 인정하게 된다. 교수는 유전적인 강화(개인적으로 ‘개량’이라고 하고 싶다)가 도덕적 책임의 틀이 넓어지고 우리보다 못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과의 연대의식이 감소하며, 사회연대에 필요한 도덕적 감동을 키우기 어려워진다고 한다.

어떤가? 대부분이 이에 긍정할 것인데 또 다른 반전을 책은 품고 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마지막 샌델 교수의 주장에 긍정과 부정 중 어느 것을 택할지는 뜨거운 여름동안 몇 번의 커피 페이지를 넘기면서 찾아보기 바란다.

“생명공학이 선물로 주어진 삶의 의미를 와해한다고 해서 특별히 잃는 것은 무엇인가?”



발기부전치료제 국산 **팔팔정**에 이은

씹어먹는

팔팔추정

50mg 출시!



물 없이 씹어먹는
팔팔추정 50mg



값 싸고 믿을 수 있는
팔팔정 50mg



※ Sildenafil 허가상 권장용량은 1회 25mg ~ **50mg**입니다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추방 캠페인

환자, 의사, 약사, 정부, 제약사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부신피질호르몬제 처방 NO.1!



부신피질호르몬제

피디^정

메틸프레드니솔론



원료약품의 분량 1정 중

메틸프레드니솔론(U,S,P) 4mg

효능·효과

- 1.피부질환 : 천포창, 중증 다형성 홍반(스티븐스-존슨증후군), 박탈성 피부염, 수포성 포진양 피부염, 중증 지루성 피부염, 중증 건선, 균상식 육종
- 2.알레르기성 질환 : 기관지 천식, 접촉성 피부염, 아토피성 피부염, 혈청병, 계절성 또는 다년성 알레르기성 비염, 약물과민반응
- 3.교원성 질환 :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루푸스 신염), 전신성 피부근염(다발성 근염), 급성 류마티스성 심염
- 4.내분비 장애 5.류마티스성 장애
- 6.안과 질환 7.위장관계 질환 8.호흡기계 질환
- 9.혈액 질환 10.악성 종양성 질환 11.부종성 질환 12.신경계 질환 13.기타

보 함 코 드 A21950881

피디^정의 주성분인 **Methylprednisolone**은 기존 Prednisolone보다 **항염효과**가 강하고, 상대적으로 Mineralocorticoid의 작용이 약하므로 부종 발생 등의 부작용이 낮은 부신피질호르몬제제입니다.

※제품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64 대동테크노타운 13차 3층 / TEL:02)2109-3300 • FAX:02)2109-3388



중외신약